

한인뉴스

2015

10

VOL. 232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5



The fastest way to capture your idea

Off-Screen Memo Feature

NEXT IS NOW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WELCOME TO
**AWESOME
OCTOBER**

MVG VIP GENERAL



Join Now!
LOTTE Member Cards

IT'S

10월 29일 ~ 11월 1일

PAYDAY

ADD. DISC.

10%

+

10%

**CASHBACK
LOTTE GIFT VOUCHER**
Min. Purchase IDR 2 Mio, 5 Mio, 7 Mio

SPECIAL EVENT

2ND GOURMET WEEK
28 OCT 2015 - 1 NOV 2015
INDULGE A NEW FOOD EXPERIENCE
HALLOWEEN EDITION

FOOD BAZAAR WITH
MORE THAN 30 FOOD STALLS,
CELEBRITY BOOTHS,
FLEA MARKET

HALLOWEEN COSTUME PARTY
(31ST OCT 15)

SPECIAL BAZAAR

DISC. UP TO **50%**

GOLF BAZAAR • 8 OCT - 1 NOV 2015 • EVENT ATRIUM

JaylorMade

Calvin Klein
golf

MIZUNO

OKLEY

ASHWORTH

DISC. UP TO **70%**

MATTRESS FAIR • 7 - 25 OCTOBER 2015 • FUN ATRIUM

SIMMONS
LIVING LIFE FULLY CHARGED

SPRING AIR
USA

DREAMLINE
LIVING LIFE FULLY CHARGED

Dunlopillo
moments

DISC. UP TO **50%**

HUSH PUPPIES BAZAAR • 14 SEPT - 18 OCT 2015 • GF

Hush Puppies

NEW OPEN

Guy Laroche | 19 OCT 2015 | GF

SAMSONITE | 23 OCT 2015 | GF

EXHIBITION

SK-II | 26 OCT - 1 NOV 2015
MAIN ATRIUM

SK II #ChangeDestiny Exhibition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제6회 인터넷문학상 시상식 축하공연
(롯데 쇼핑 예비뉴)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6

논설위원칼럼/ 수하르토-핫타
<김문환 논설위원>.....8

이모저모 한인사회.....10

메트로자야 경찰청장 면담
국군의 날과 개천절 경축행사
KOREA FESTIVAL 2015
제6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제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인니본부 워크숍

편집장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취향과 상관없이 다양한 공연을 다닙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9월과 10월에 몰린
무대와 전신을 보며
작품을 준비한 사람들의 타인과 교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을 상대하느라 종합선물세트처럼
잔치의 분위기도 담겨있습니다.

민족의 우수성은 국가경제지표나 FIFA순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젠 우리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북한인권주간 행사	9월의 경제 브리핑.....42
박조유 우드워킹 조각전	지상갤러리 / 조지아오키프
KOWIN 인도네시아지부 제7기 출범식	(Big Apple, Apple Family) <김선옥>.....46
KOFA 신만기 현회장 재선임	10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8
KOREA EDUCATION COMPLEX 기공식	Taman Fatahillah <장인우>.....50
한국전문대 단독 교육전	Jalan-jalan Jakarta
도전 역사왕	Museum Bahari <사공경>.....54
CJ OVOP 후원 협약식	법률해설 / 재단법안의 외국인임원에 대한 고용
자카르타 성요셉성당, 20주년 기념 음악회	허가서 보유 의무<이승민>.....58
Global YBM 인도네시아1기 연수생 입소식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62
가종수교수 초청강연회 감상문 <이수진>	확~달라진 재외선거제도 <옥미선>.....68
채인숙작가, 제4회 오장환 신인문학상 당선	생활정보
JIKS 소식	
JIS 소식	
집중! 이 사람 <박현순코원회장>.....38	
박정자시인의 사진읽기.....41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하르토-핫타’

김문환/논설위원

1991년 9월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자카르타 시내 공공장소에 18 페이지로 된 가명의 문건이 살포된 적이 있었다.’ 한국x xxx’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 불온문서(?)에는 ‘어글리 코리아’의 작태를 통렬히 비판하고 꾸짖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직설적인 언어와 지나치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쓰여진 탓에 거부감을 유발시키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화상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한인사회에 카타르시스적인 파장을 몰고 온 적이 있었다. 최근 사물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손에 잡힌 그 문건을 다시 열어 보면서 2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한인사회의 양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가늠해 보게 된다. 그 첫 장 서두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야! 이뚜 가져와! 썩 안하나!

모르면 쓰지를 말든가 배워서 말할 것이지 한국말도 인도네시아말도 아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옷통을 훌렁 벗어 제치고 xx만 걸쳐 입은 채 가정부한테 떠들어댈 땐 가관이다. -이하 중략- >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국적기에 몸을 실었다.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띠 착용이 해제되면서 목적지에 대한 여행정보를 알리는 기내방송이 흘러 나온다. “인천에서 목적지인 ‘수하르토-핫타’ 공항까지는 6시간 40분이 걸리고...”가 나오더니, 잘못된 멘트임을 알아차린 듯 이번에는 ‘수카르토-핫타’로 옹키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그 승무원은 복잡한 지명을 놓고 순간적으로 혼선에 빠진 듯 했다. 물론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겐 이 고유명사가 발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승객들에겐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을 것이다.

필자는 진출기업을 상대로 간간히 초청강연회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한인사회 내에서 인도네시아를 연구하고 배우는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신드롬을 체감하게 된다. 공개강좌, 스터디그룹,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으며, 학문적인 접근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내에는 인도네시아 설명회 강좌가 개설되어 전공교수진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 사립대학은 아예 최고경영자과정 강좌를 자카르타에서 운용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언론사의 한 논설위원은 ‘자바 조선인 군속의 항일비밀결사와 암바라와 사건’이라는 사료가치가 높은 주제를 설정하여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쪽의 사료발굴에 열중하더니 국내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였다.



요즘 자카르타 근교 우이대학(UI) 테뭉 캠퍼스에 가면 어학코스를 밟는 한국유학생들이 넘쳐나면서 마치 어느 한국 대학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다분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인도네시아어에 입문하고 초보를 벗어나겠다고 노력하는 정도는 상식이 되었다. 이제 웬만한 수준으로는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외국인력 취업조건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어 능력테스트를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을 놓고 벌어진 찬, 반 논란을 떠나, 24년 전 용기 있는 자의 고연대로 제대로 배워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국민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수적으로 상위를 점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로서 우리 주변의 현지인들의 시각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조명될까 하는 점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진출 초기단계였던 1970~80년대에 한인사회는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현지인들은 그들과 자주 마주치는 서구인들과 일본인들을 향해서는 식민지시대, 또는 제국주의시대의 잔영이 남아서인지는 몰라도 배타심과 경외감이 함께 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근래에 종교적 이념의 바탕 아래 자원민족주의, 금융민족주의가 난무하는 혼돈의 상황에서, 이제 규모 면에서 그들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축성된 한인사회는 현지인들에게 지금 어떤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유발되면서, 제2의 '불운문건' 재차 출현할 필요성이 없는 한인사회로 정화되고, 승화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게 된다.



조태영 대사, 메트로자야 경찰청장 면담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자카르타 및 땅그랑, 버카시, 데벡을 관할하는 메트로자야지방경찰청의 띠또 까르나피안 청장(Tito Karnafian, Kapolda Metro Jaya)을 9월 21일 (월) 면담하고 우리기업과 교민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대사관의 경찰영사, 고용노동관과 한인회 조규철수석부회장, 배도운수석부회장, 재인니봉제협회김종림회장이 동석하였으며 메트로자야경찰청에서는 범죄수사국장, 조정관 등이 배석하였다.

조태영 대사는 2,200개의 우리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1백만 명의 현지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도네시아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매년 하반기 노동계의 임금투쟁 시기에 공단 지역에서 불법시위(스위핑)가 반복되어 조업중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찰이 우리기업들을 보호해주도록 Tito 청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Tito 청장은 불법시위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하면서 해고가 노동계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제위기 극복과 시위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태영 대사는 최근 국제테러조직인 ISIL이 한국을 “십자군동맹”의 하나로 상정하고 테러위협을 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메트로자야경찰

청에서 재인니 한국동포사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Tito 청장은 인니경찰은 테러활동 탐지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테러관련 정보입수시 즉각 대사관에 통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번 면담을 통해 Tito 청장과 한인회, 봉제협회의 회장단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사관에서는 재인니 동포사회와 진출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양국 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관계자 면담 등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군의 날과 개천절 경축행사



10.2(금),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대사 조태영)은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며 ‘국군의 날’과 ‘개천절’을 경축했다.

Fairmont Hotel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 짜요 꾸물로 내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외교 및 무관단, 동포사회 대표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의 첫 순서는 양국 국가 연주 및 제창으로 막을 열었고 조태영 대사의 환영사,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의 축사, 국경일 축하 케익 커팅,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다 함께 대사관에서 준비한 한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태영 대사는 중견국 협력체인 MIKTA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속해있으며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도 이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며,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여 귀빈으로 참석한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은 한인사회가 인도네시아에서 5만명이 넘는 가장 큰 외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인니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문화 공연(점프) 등 한국문화 소개와 함께 진행된 이번 리셉션 행사에는 주재국 10여명의 장관(급) 등이 참석하여 최근 확대 심화되고 있는 한.인니 양국간 협력 관계와 주재국 내 한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Korea Festival 2015



10월 한국문화의 달, 문화행사 ‘풍성’
 년버벌, K-콘텐츠, K-푸드, K-트래블,
 퓨전국악, 한인니 영화제, 패션쇼 등 열려

- * 10.1-4 한국 대표 8개 년버벌 퍼포먼스 쇼케이
 스 (롯데쇼핑애비뉴)
- * 10.1-4 K-콘텐츠, K-푸드, K-트래블, K-애
 니메이션 전시·공연 (롯데쇼핑애비뉴)
- * 10.10,12 퓨전국악콘서트 (자카르타 Usma
 Ismail, 반둥 국립교육대학)
- * 10.28-11.1 한-인니 영화제 (CGVblitz 상영
 관 총 5개 지역, 자카르타-Grand Indonesia, 발
 리파판- Plaza Balikpapan, 족자카르타-Sahid
 Jogja Walk, 반둥- Bandung Electronic
 Center, 땅그랑- Teraskota)
- * 10.30 자카르타 패션위크 코리아특별세션 (스
 나얀시티몰 메인무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인도네시아 관광부, 창조산업위원회와 협력하여 2015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자카르타 롯데쇼핑 애비뉴와 CGVblitz상영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10월 문화의 달 개막식 (10.1)과 콘텐츠 로드쇼(10.1), 국경일 리셉션 (10.2)을 시작으로, K-콘텐츠와 K-푸드, K-트래블 페어, K-애니메이션·콘텐츠 전시, 명사초청-퓨전국악 콘서트, 한-인니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K-퍼포먼스 페스티벌: 10월 1일부터 4일간 롯데쇼핑 애비뉴 메인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8개 팀의 년버벌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K-퍼포먼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공연팀은 난타, 점프, 쿵, 비밥, 페인터즈 히어로즈, 판타스틱, 사춤, 드럼갯으로 사물놀이, 비보이,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년버벌 공연이 관객을 맞이했다.

K-푸드 페스티벌: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롯데쇼핑 애비뉴에서 K-푸드 페스티벌이 열렸다.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전문 요리사의 다양한 종류의 한식시연회, 20m길이의 대형 김밥 만들기 이벤트와 다채로운 홍보활동이 펼쳐졌다. 또한 최근 건강한 한국식품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할랄식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할랄 인증제도와 할랄 식품을 소개했다.

K-트래블 페스티벌: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롯데쇼핑 애비뉴에 마련된 K-트래블 부스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경험 할 수 없는 가을,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방한 관광상품 홍보부스와 합리적인 가격의 관촉행사를 실시했다.

K-POP 페스티벌: 10월 4일 메인무대에서는 K-POP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결선 대회가 치러

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차 예선에 합격한 20여 개 팀은 오는 10월 22일 한국에서 펼쳐지는 K-POP 페스티벌 한국행 결선 티켓을 두고 열띤 경연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파견되어 활동 중인 문화예술봉사단 ‘예랑’의 축하 국악공연이 있었다.

퓨전 국악 콘서트: 한국문화원이 후원하고 재인니문화예술총연합회(문예총)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명사초청 프로그램인 퓨전 국악 콘서트가 10월 10일 Usma Ismail, 12일 반동 국립교육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해금, 대금, 가야금 국악기와 피아노, 바이올린 선율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퓨전 국악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자카르타 패션위크 한-인니 디자이너 합동무대: 한국의 soul-pot 디자이너 김수진씨와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Patrick Owen 씨가 한국적 감성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코리아 특별세션이 10월 30일 인도네시아 최대 패션행사인 자카르타 패션위크 메인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한-인니 영화페스티벌: 6회째를 맞이한 한-인니 영화 페스티벌은 10월 28일 그랜드인도네시아 CGVblitz 상영관에서 개최되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자카르타, 땅그랑, 족자, 반둥, 발릭파판 총 5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5만 재인니 한인 사회에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리는 취지에서 우수 인도네시아 영화도 상영하여 영화를 통한 한-인니 쌍방향 문화교류를 추진한다.

조태영 대사는 “10월 문화의 달에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류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한류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양국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쌍방향 문화교류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시관과 함께 운영되는 ‘한국 브랜드 사업관’에는 SM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 LG전자(모바일), 멜론(스트리밍), 디스트릭트(라이브스케치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선을 보여 현지 관객들의 시선을 잡았다.

또한 10월 1-2일 이틀간 레플스호텔에서는 국내 참가기업과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간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최근 한류 시장의 다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및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이슬람국가로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로드쇼가 인도네시아에 우리 콘텐츠를 더욱 알리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한류를 비즈니스 한류로 진화시킬 수 있는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제6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20일, 한*인니 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롯데 쇼핑 에비뉴 4층 아이스팰리스에서 ‘제6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자들의 앙골롱 연주로 시작된 시상식에는 조태영 대사, 신기엽 한인회장, 패션디자이너 하리 다르소노(Harry Darsono), 도자기 작가 위다안또(F. Widayanto)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태영 대사는 “해마다 풍성한 축하 공연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훌륭한 인도네시아의 문화 예술을 선보여 온 점을 높이 사고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매끈하지 않고 익지 않은 글이라 개성이 넘친다는 평을 받은 대상 강동현군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매주 토요일 sitanala 가족들과 함께 보낸 기쁨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저에게 행복을 전해줬다. 벽찬 기쁨을 만끽하기 보다는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이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축하 공연에서는 발리 징공팀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나볼 수 있었다. 가믈란과 사물놀이가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징공팀의 예술은 서슴지 않고 ‘특별하다’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훌륭했다.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을 연구 중인 한국인 음악가 정지태씨와 가믈란의 대가 I Wayan Sudirana가 창립한 사물놀이 징공팀은 한국에서 열린 세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인니 문화원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 행사가 한국

교민사회의 입지를 높여 가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내년에는 교민중심으로만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언어통역과 해설도 겸비하여 인니인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하겠다” 고 다짐했다.

학생부: <대상>강동현 (JKS 10) 조노 아저씨,
<최우수상> 신승재 (SIS 12) 브로모 연가
<우수상> 박다인 (SPH 11), 이재원 (GJS 12)
<장려상> 김혜리 (GJS 11), 오하영 (AIS 9),
한하림 (JKS 11),

일반부: <대상> 최우호 (UIBIPA) 죽음은 삶과 하나,
<최우수상>강석영 (물리치료사) 두 번째 기회
<우수상> 이은미 (주부), 노명화 (JKS 교사)
<장려상> 강주미 (주부) 은보라 (주부)
신학섭 (롯데건설 ASC 현장)

후 원: 재외동포재단
PT.TAEWON INDONESIA
PT.PRATAMA ABADI
PT.CIPTA ORION METAL

특별후원: CJ TOUS LES JOURS
LOTTE SHOPPING AVENUE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위협 관련 해외안전여행 공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수 국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대 행위를 선동하고 있어,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를 여행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자체, 우리 공관 비상연락처 사전 숙지, 위험지역내 다중 밀집시설 이용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서 인도네시아는

- 남색경보(여행유의) : 전지역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황색경보(여행자제) : 아체주, 말루꾸주, 중부 술라웨시주, 파푸아주로 여행경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중 신변안전 위협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인니본부 워크숍’

지난 9월 12일, 13일 양일간 ‘제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인니본부 워크숍’이 수라바야에서 개최되었다.

총 23명의 인니본부 자문위원들과 조태영 대사 부부, 신기엽 한인회장, 승은호 아세안 명예부의장 부부, 박상민 공사 등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강연과 분임토의, 고아원 방문과 자문위원들끼리의 친목을 다지는 운동과 관광 등 알찬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동남아남부협의회 전민식 회장은 인니본부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설정한 제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활동방향과 앞으로 동남아남부협의회가 이뤄야 할 목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자문위원들에 향후 2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자문건의 내실화, 통일준비의 본격화, 통일미래인재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상 구현 등의 활동방향에 동남아남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조함으로 단순한 감투가 아닌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깨웠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승은호 아세안 명예부의장은 “17기 내에 통일이 될 것 같다”며 통일에 대한

에서 전쟁이 미치는 심리적 공황상태, 통신두절과 내부의 적이 만들어내는 전쟁 상황 등을 직접 보며 국민 전체가 전쟁 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조태영 대사의 “최근 한반도 정세”와 이수진 자문위원의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조태영 대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논리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의견에 대한 제시로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공감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었다.

대한민국은 deterrence, 설득, 압박을 적절히 활용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펼치는 핵개발에 대한 논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도발한적 없으며 핵이 북한을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줌으로 향후 자문위원들의 활동 전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은 강연 이후에도 늦은 밤까지 “통일과 재외 동포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워크숍의 열기를 더했다. “인도네시아 내 여론 조성을 위한 평통 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북한정세, 통일정책관련 객관적 정보 제공, 친한 여론 조성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주변에 널리 알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토의가 있었고

“해외 거주 청소년의 통일 의식 제고”를 위해 통일 웅변대회, 글짓기, 영화 감상 등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달라지는 해외 생활”에 대한 예측으로 당장 재외동포들에게 닥칠 북한동포들과의 문화적 충돌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어지는 행사에서 민평통 자문위원들은 수라바야 한인교회와 김수용 자문위원이 운영하는 Rumah Korea 고아원을 방문하여 거주국내 친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자문위원의 활동을 직접 보고 또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 17기 자문위원 중 이세호 자문위원은 아이들에게 운동복을 개인적으로 추가 후원하고 홍권표 자문위원은 운동화를 후원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후 17기 자문위원들은 대사관 박상민 공사가 준비한 ‘한반도 가상 전쟁 시나리오, 3일간의 기록’ 영상을 시청하며 만약 전쟁이 발발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배웠다.

특히 2천5백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



북한인권주간 행사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재외동포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하여 북한시민연합 주최로 북한인권주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16일에는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을 위한 “크로싱” 무료 상영회 및 탈북동포와의 대화를 롯데쇼핑 에비뉴 아이스펠리스 홀에서 개최했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전민식회장은 북한의 인권문제 및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승은호 아세안명예부위원장, 신기엽 한인회장 이하, 120 여명의 한인동포 및 인도네시아 관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뜻을 함께 하자고 독려했다.

이어서 전 통일부차관인 김석우고문은 “남북통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력향상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발전상에 경의를 표하였다.

홀을 가득 메운 120 여명의 관객들이 “크로싱”을 관람하면서 북한 가족의 안타까운 엇갈림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탈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눈가의 눈물을 닦는 모습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다시금 통감하게 하였다.

상영회 후에는 2001년에 한국으로 탈북, 지금은 북한개발연구소 연구원인 김혁 박사와 래퍼와 화가로 활약하고 있는 강춘혁씨가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화와 중국에서 탈북자로 숨어 살면서 겪은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30대 젊은 탈북자인 그들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문제와 실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행사를 마치기에 앞서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전민식 회장은 하루빨리 북한인권이 개선되기를 염원하면서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에서는 현금 2,000불을 북한인권 시민연합 측에 후원금으로 전달 하였으며, 또한, 행사 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북한의 실상과 새터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어려웠던 고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조유 우드워킹 조각전

5일, 롯데 쇼핑 에비뉴 메인 아트리움에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 섹션의 초청으로 박조유 작가의 모던한 추상조각 작품 전시회 ‘우드워킹 조각 초청전’이 열렸다.

조각과 공예 구분 없이 나무를 소재로 이뤄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총칭하는 우드워킹(Wood Working) 전시회는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 섹션(회장 이수진)이 주최하고 한인회(회장 신기엽), 문예총(회장 강희중),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 롯데 쇼핑 에비뉴가 후원하여 5일부터 20일까지 전시됐다.

박조유 작가와 코리아 섹션의 인연은 지난 2013년 이 단체의 초청으로 세계 50여 개국의 헤리티지 회원들에게 인도네시아 파푸아 아스맛 부족의 문화와 삶, 그리고 조각예술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박조유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아스맛 부족의 목조예술에 빠져 지난 20여 년간 현지를 수차례 답사하며 연구를 이어왔다.

박조유 작가는 “나무와의 만남을 숙명이다. 나무는 인간의 벗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나의 작업은 나무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회장은 “인도네시아 고목에 혼을 불어 넣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며 “한인사회의 풍요로운 행사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조유 조각가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인회에 작품 한 점씩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조태영 대사는 “나무가 죽어가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낸 작가분에 경의를 표했다.

한인회 신기엽 회장은 “작품으로 보는 순간 놀랐다. 한인사회 동포들에게 이런 작품을 보여주시니 감격스럽다” 고 말하며 행사를 위해 수고한 이수진 회장 외 임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증진하기 위해 8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로 코리안섹션은 이수진 회장을 중심으로 박물관 연구, 스킵 프로그램, 사진, 문화 탐방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KOWIN) 인도네시아 지부 제 7기 출범식

10월 1일, 여성가족부 산하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회장박현순, 이하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 제7기 출범식이 리츠칼튼호텔 퍼시픽플레이스 6층 Private Dining Room에서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여성사업가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리더, 차세대 등 50여 명이 참석 했고, 오계영 인니지부 명예고문 (대사 부인)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현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6기는 차세대들의 활동에 주력했다면, 7기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코윈이 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여성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오계영 인니지부 명예고문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우뚝 서 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고통이 따르지만 열매는 달다” 며 임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당부했다.

청일점으로 참석한 임현철 관세관은 “행동하는 코윈, 멋진 코윈이 되길 바란다” 며 초대에 감사를 표했다. 코윈관계자는 “KOWIN은 인도네시아에 재직중인 여성, 인도네시아 체류

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을 하고 싶은 여성,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여성, 모두에게 문호가 활짝 개방되어 있다.” 고 설명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코윈(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은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이다. 현재 해외 2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코윈 인도네시아는 명실상부 제1의 여성 단체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제 7기 세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박현순 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코윈 인도네시아는 상호네트워킹, 차세대와의 소통 및 멘토링, 전문성 발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여성의 능력 및 잠재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만기회장, KOFA 회장 재선임

재인도네시아한인신발협회(KOFA)가 지난 2일 회장단 회의 및 간담회를 열고 신만기 현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선임했다.

KOFA는 이날 땅그랑 까라와찌 임페리얼컨트리클럽에서 2016년 하반기 회장단 회의 및 간담회를 열고, 제4대 회장 선거와 2016년 제7회 신발인의 날 행사 개최, 세계한상대회와 신발박람회 참가 등의 굵직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심으로 축하하며 진정한 신발왕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신발인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회장은 대형 신발제조업체 KMK의 회장으로 초대 및 2대 KOFA 회장을 역임했다.



4대 회장 체제를 시작하는 KOFA는 이제 설립 7년차에 접어들면서 보다 선진적인 체제로 협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신만기 KOFA 회장은 지난 2년간 한인기업을 위한 각종 대정부간담회와 수시로 변하는 기업환경과 법안에 관해 최일선에서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고, '함께 가자' 라는 상생의 마인드로 신발협회 회원사를 이끌어 그 신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이날 회장단 회의를 위해 참석한 수라바야 흥춘식 부회장은 KOFA의 하나됨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수라바야에서도 항상 공감할 수 있게 협회를 운영해줘 고맙다는 뜻을 표했으며, 신발산업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스마랑에 등지를 틀어 이후 진출하는 많은 회원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KOFA는 2일 땅그랑 까라와찌 임페리얼컨트리클럽에서 2016년 하반기 회장단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대형 신발제조업체 파크랜드 사장인 신만기 회장은 3대 회장 임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4대 회장으로 뽑힌 후,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년을 KOFA 회원사의 권익과 상생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KOFA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창근 명예회장은 신만기 회장의 재선임을 진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코파의 힘' 강제홍 대표]



제26회 KOGA(한국봉제협회)골프대회

제26회 KOGA(한국봉제협회)(회장 김종립)골프대회를 9월29일 JABABEKA G.C에서 120명의 회원과 초청 내빈이 참석하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제16회 인도네시아한인미술협전

Exhibition of Korean Art Association 2015




2015. 10. 15(목) ~ 21(수)
(Opening Thu.10.15 PM 5:00)


Korean Cultural Center


Equity Tower 17 Floor, SCBD, Lot 9
J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T. (62-21) 2903-5650

 **한인미술협회**

후원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KDB대우증권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두란노 교육재단, Korea Education Complex 기공식



지난 9월 21일 인도네시아 두란노 교육재단(설립자 대표 김학진, 공동설립자 이용규, 이사장 이호덕. 이하 두란노 교육재단)은 인도네시아에 수준 높은 한국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교육복합단지(KOREA EDUCATION COMPLEX, 이하 K-eduplex)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 IT 기술, 경영, 어학 분야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산업 전문인력 인재를 육성할 것” 이라고 K-eduplex 이용규 공동설립자는 기공식에서 밝혔다.

기공식에는 고 서만수 초대설립자대표의 미망인 정소라 선교사, 신기업 한인회장, 이재학 KEB하나은행장, 김지용 포스코 법인장, 김재희 한국타이어 공장장, 이수일 CBMC 회장, Dr. Iman Santoso 목사, H. Rohim Mintareja 버카시 부군수, 정영명 한선협 회장, Bobby Kusuma Wardhana Cikarang 경찰서장, 장영수 한목협 회장, 김종국 KWMF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과 미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다양한 후원자 그룹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약 2억 5천만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가능성의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인구의 76% 정도가 초등 교육만을 받은 상태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등 고등 및 전문교육을 받은 기술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찌기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일군 한인 동포들 사이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 의미있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났고, 다양한 한인 동포 그룹이 참여하여 2006년 대학 설립의 모체가 될 두란노 교육재단을 출범시켰다.

더불어 필리핀, 미국 등 해외에서 사업을 일군 많은 한인 기업가들이 기부에 동참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와 한국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교육복합단지(Korea Education Complex)의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학진 설립자 대표는 “2006년 12월 두란노 교육재단을 세우고 2008년 신도시 델타마스에 50,008m²에 달하는 캠퍼스 부지를 구입해 한국형 국제대학을 포함한 한국교육단지 건설을 준비해 왔다” 고 밝혔다.

델타마스의 한국형 교육복합단지 K-eduplex 는 올해 9월 첫 교육 복합동 건축을 시작으로, 캠퍼스내에 종합대학교,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유치원과 초중고등 과정 학교, 국제적 수준의 언어교육원 등을 망라한 전문교육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동남아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받아 학생수 2,400여명, 교직원 150여명의 규모의 한국형 국제 종합대학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기사제공: haninpost>

한국전문대 단독 교육전

한국 국립국립교육원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후원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회장 김홍길)과 SEAMOLEC (South East Asia Min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Regional Open Learning Centre) 그리고 사단법인 한.인니 교육문화 교류재단(이사장 한상재)이 공동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한국전문대 단독 교육전” 이 (Education EXPO 2015) 2015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총 16개 한국전문대학, 총 36개 인도네시아 교육기관이 참석하고 팔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SMKN 57 Jakart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전에 참가한 한국의 전문대학과 인도네시아 교육기관별 국제협력서 체결 및 전문대학별 “인도네시아 우수학생 선발면접”을 통하여 한국의 전문대학교는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국제교류 확대의 장을 열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우수학생에게는 참가한 전문대학교 가족기업 혹은 산학협력 기업에서 장학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우수학생을 유학시키는 D2-VOKASI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합의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연간 2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전문대에서 꾸준히 유학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

일반 교육전 이외에 인도네시아 새마을 운동본부(가칭)와 교육전에 참석한 구미대, 전주비전대, 영남이공대, 제주한라대, 대전보건대, 경남정보대학을 포함 총 6개 대학과 새마을 운동 중점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자리에 서부자바주(주지사 : Ahmad Heryawan), 누사똥가라주(주지사: Muhamamad Zainul Majdi)에서 부주지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 (DPR) 재정분과위원장 Mr.Willgo등 인도네시아 새마을 운동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새마을 운동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 전문대학에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Caregiver협의회 (APCI/Asosiasi Pengelola Caregiver Indonesia)와 광주보건대, 영남이공대, 용인송담대, 선린대, 경

남정보대학을 포함 총 5개 대학과 한.인니 양국의 Caregiver 양성과 교육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6년에는 50개 이상의 한국전문대학교가 참가하는 “제2차 한국전문대 단독 교육전”을 개최하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합의하였다.

참가대학 (무순)

경남정보대학, 용인송담대, 영남이공대, 선린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경남도립 거창대, 울산과학대, 동원대, 전주비전대, 한양여자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 제주한라대학, 한국영상대학, 대전보건대학, 원광보건대학.



교육전 개막식



가칭 인도네시아 새마을 운동본부와의 협약체결



인도네시아 Caregiver 협회와 협정체결

도전! 역사왕

퀴즈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학생 여러분!**
 동참하여 주신 **학부모 및 JIKS 관계자 여러분!**
 풍성한 대회를 만들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역사왕 (박진은, 8학년, Cita Buana School) 외, 수상자 29명

후원하여 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주관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협찬



재인도네시아 ROTC지회

CJ OVOP 후원 협약식 개최 CJ OVOP SPONSORSHIP MOU CEREMONY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KOTRA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KUKM)와 공동으로 29일(화) 그랜드 인도네시아몰 CGV-blitz에서 양국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J 인도네시아(대표 손용)와 족자카르타 소재 자띠로고(Jatirogo) 협동조합 간 One Village One Product(1촌1품 운동)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자띠로고 협동조합은 족자카르타 꼴롱 뿌로고(Kulon Progo)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강에 좋은 코코넛 설탕을 생산하고 있음 (조합원 약 2,000명, 2013년 기준 생산량 570톤, 전량 중간도매상을 통해 수출)

1촌1품 운동 (OVOP; One Village One Product)은 인도네시아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2007년 대통령령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106개 품목을 추진 중이며 향후 500개 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한국의 1사1촌(1社1村)운동을 인도네시아의 1촌1품(OVOP)과 접목한 첫 사례로 동 사업에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은 각 OVOP 품목별 생산조합과 1:1 후원 결연을 맺고 3년간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대사관과 KOTRA는 2015년 CJ 인도네시아,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롯데마트, EAGLE 등 5개사의 후원결연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인니 진출 한국기업과 OVOP 조합간 후원결연을 확대 할 예정이다.

*한국 1사1촌 운동현황(2013년 기준)

- 2004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도시-농촌 협력 사업으로 기업이 특정 지역과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 2013년 기준 자매결연 마을 10,446개, 도-농 교류금액 683억원 (농산물직거래 449억원, 농촌 체험 35억원 등)

아울러,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KOTRA는 OVOP 사업 지원 목표를 'OVOP 조합의 자립능력 배양'에 두고 이를 위해 후원기업과 함께 '물고기 보다 물고기 낚는 법' 전수에 주력 할 방침이며,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전과정에서 물적지원과 교육훈련을 병행하고 현금제공 금지, OVOP 조합-후원기업간 공동투자, 3년 졸업제' 등 3대 지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합의 자립심 고취, 기업이 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자카르타교구 천주교 성요셉 성당(주임신부 김인환 율리아노. 이하 성요셉 성당)은 지난 9월 18일(금), 19일(토) 이틀간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성요셉 성당 음악회’를 개최했다. 성요셉 성당 사목협의회(회장 양영연)가 주최한 이날 음악회는 피아니스트 원영아 플로라, 오르가니스트 문병석 안드레아를 초청했다.

특히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연주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보기 드문 전례용 오르간을 선보여 축하 내외빈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인환 율리아노 신부는 “올해는 저희 성 요셉 성당이 본당 설립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전례 안에서 울리는 교회음악이 더 풍성해 지도록

이 곳 자카르타에서 흔하지 않은 전례용 오르간을 도입했다”며 “고국의 전문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회를 동포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념 음악회 첫날 피아니스트 원영아 플로라의 피아노 연주는 모차르트가 민요 주제에 변주를 붙인 태교 음악의 절정판 ‘작은별 변주곡’을 시작으로, 베토벤 초기의 피아노 소나타의 절정을 이룬 걸작인 ‘비창소나타’를 선사했다.

둘째날에는 오르가니스트 문병석 안드레아의 전례 오르간 연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문병석 안드레아 오르가니스트는 첫곡으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선택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주인공 스피elman이 독인군 장교에게 들려주었던 곡으로 잘 알려져 있어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문병석 안드레아 오르가니스트는 자카르타에서 듣기 어려운 주옥같은 오르간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연주회에는 장영수 목사(한마음교회) 한인목회자 협의회 회장, 승은호 한인회 명예회장, 신기엽 한인회장, 송창근 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인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사제공 : 한인포스트>



Global YBM (Young Business Manager) 인도네시아 1기 연수생 입소식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Global YBM(Young Business Manager) 인도네시아 1기 연수생 41명(원장: 유춘식, 팀장:김남규)이 10월5일 반둥공대 Jati Nangor Campus KOICA Cyber Security Center 연수원에서 입소식을 가졌다. 반둥공대 어학연수원장을 비롯한 교수 10여명, 대사관 김용운 노무관, 코트라 염승만 부관장, 반둥 한인회 최이섭 회장,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이금화 사무국장, 엄정호 사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멘토 9명과 영국인 영어 교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연수생들은 인도네시아 오기 전 국내에서 3주간 1일 10시간 생산관리,품질관리, 인사노무관리, 영업, 구매 등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았고 반둥 공대 연수원에서는 내년 6월 30일 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 까지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 내 6월 30일 수료식 전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축하합니다!!! 광복 70주년 한국-인도네시아 결기행사 사진 및 감동수기 수상자



수기부문 대상 김일순



수기부문 최우수상 최우호



수기부문 우수상 이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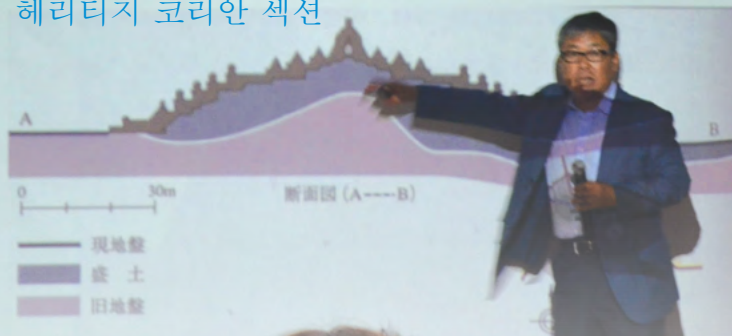


수기부문 장려상 최영서, 최준하



사진부문 수상 황미리

한인 문예총과 헤리티지 코리아 섹션



초청 강연회 가종수 교수 / 인도네시아 거석문화 감상문

“돌에 새긴 인도네시아 고대역사의 흔적”

글 : 이수진 (헤리티지 코리아 섹션 회장)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후원으로 한인 문예총과 헤리티지가 주최한 2015년 명사 초청 강연회는 가종수교수님이 직접하신 영어 강좌와 한국어 강좌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문화적 지식이 척박한 자카르타 사회에 단비와 같은 좋은 역할을 해주었다. 이 글은 이번 두 차례 강의 발표 문안을 바탕으로 필자가 편집한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찬란한 고대 문화를 지닌 나라로서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교류 관계가 가장 깊다.

역사를 알려주는 좋은 증거물들을 바로 거석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무덤, 기념물, 신앙의 대상이든 돌로 만들어 놓으면 변치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래 간다. 인도네시아 다양한 거석 유구나 유적은 역사적으로 선사시대와 고대 왕조들의 흥망성쇠에 대해 전해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역사학의 연구 방법은 문헌 자료, 미술사, 고고학 등의 사료(Evidence)를 근거와 바탕으로 과거를 연구하는데, 이번 강연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거석유구와 유적을 소개하고 나서 역사학의 요소 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인도네시아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1~2세기 경부터 인도와 교역을 통해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16세기까지 계속하여 기층문

화(토착문화)와 혼합한 양상을 띠는 복합문화(Syncret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발견된 비문을 통하여 기원 후 4세기 경에 칼리만탄의 꾸타이 왕조가 융성했고, 5세기 경에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에 따루마느가라 왕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비문과 몇가지 중요한 유물들이 이 시대를 잘 알려주는 사료로 이들 왕조는 힌두교를 신봉하였다.

7세기에서 12세기 말레이반도까지 세력을 뻗은 스리위자야는 수마트라 팔렘방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를 제패하는 인도네시아 최초 해상 대제국이다. 이 해상 제국의 영토에는 말레이반도가 포함되며 참파라고 불리는 중남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도 교역 기지가 건설되었다. 불교를 신봉했던 스리위자야는 “영광스런 승리”라는 뜻을 지닌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8세기에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근처에 있었던 사일렌드라는 불교왕국으로 보로부두르를 건설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산자야는 힌두왕국으로서 프람바난 사원을 지었다. 이러한 문화 유산들은 세계 3대 불교 유적으로 손꼽히는 앙코르와트나 미얀마의 바간 사원보다 훨씬 앞서서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고대 왕국들의 발전은 조상숭배와 도작문화의 발달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동남아시아 다른 초기국가의 성립도 이와 비슷하다.

거석문화의 좋은 예는 동남아시아의 선사시대 암채화인데 이는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바위 그늘에 그려져 있고, 동부 인도네시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플로레스 섬의 리앙 부아 동굴에서는 구석기시대 유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뇌용량이 일반인보다 훨씬 적은 호빗의 두개골이 발견된 곳이다. 구석기시대의 손 그림은 술라웨시섬의 모라스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발리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물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거석 문화는 수마트라의 파세마 고원, 솜바섬, 플로레스섬 베나족 마을, 동부 자바 본도위소 등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유적과 유구가 발견되었다. 인도네시아 거석문화의 특징은 약 400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많은 섬에 오스트로레시안이 확산시킨 것으로, 공통적인 문화는 조상 숭배 사상이며 거석유구의 축조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스톤헨지 또는 이집트 기차 지구의 피라미드, 스텝크스 등이 대표적인 거석유구이다. 바닷가에 한줄로 서있는 큰 모자를 눌러 쓴 모아이도 독특한 모습의 거석유구라 할 수 있고, 한반도의 40000여개나 되는 고인돌도 거석유구의 하나이다. 고창의 고인돌 사진을 보면 한국의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 모양을 알 수 있다. 일본에도 1000 여개의 고인돌이 보고되었다. 거석문화를 토대로 해볼 때 산과 바위, 조상신에게 다산과 풍작, 성 혹은 성기를 통한 자손 번영을 기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산과 함께 거대한 바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용천수나 화산구의 호수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거석 문화는 조상숭배와 관련하는 무덤이나 기념물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인돌이나 선돌 등이 이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솜바섬에서 직조로 만드는 “이깻” 이라는 천으로 된 의례용 왕비의 옷 문양에는 적의 헤드헌팅을 통해 얻은 수급(두개골)을 걸어놓은 수가문이

있는데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고, 조개로 만든 탐스로운 사내아이나 사소리 문양은 강한 왕자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고, 이러한 “이깻” 과 유사한 주술적 문양이 거석유구에도 새겨져 있다. 지상 최후의 지석묘 사회인 솜바섬은 아직도 거대한 돌을 세워 무덤을 만들고 있어서 거석문화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나무 끌개로 큰 바위를 이동했으나 요즘엔 포크레인을 사용한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슈지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가중수 교수는 1988년 이후부터 동남아 각지에서 왕성하게 유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 공동 저서 “동인도네시아의 거석문화와 건축” 을 집필했다.

지난 1989년경부터 가중수 교수는 3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에 수십차례 방문을 하며 거대한 돌(거석유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 얇고 달려 가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계속해왔다. 술라웨시섬의 거석유구 조사는 산간벽지의 가혹한 환경에서의 조사였으며, 플로레스 섬의 거석유구의 조사에서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현지인의 민가에 기숙하며 이불도 없이 잠을 청하며 고생을 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처음으로 솜바섬의 지석묘 만드는 과정을 사진을 찍었으니 긴 세월동안 얼마나 인도네시아 구석 구석을 다니셨는지 짐작이 갈 만하다. 지금은 길이 더 좋아졌고 교통도 훨씬 편해졌으나 그때는 너무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었다. 그 당시 연구를 한다해도 차량과 숙식문제가 난제였으니 힘든 여정임에 틀림없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으리라 본다.

한국어 강연 때에는 보로부드르 벽면에 새겨져 있는 부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야부인이 석가를 잉태하여서 태자를 낳고 태자가 궁밖에서 있는 고달픈 삶을 사는 중생을 만나는 이야기 등등의 스토리가 한 장면씩 소개되었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니 벽면의 부조 하나 하나 마다 너무나 이야기가 자세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로부드르 벽면 부조는 전체적으로 석가의 일대기인 불전도(佛傳圖), 선재동자 순례기, 석가의 전생이야기 자타카와, 불자의 전생이야기 아바다나 등 인도의 불교 설화를 주제로 한다.

가중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부조를 새긴 사람은 자바 사람으로 부조 자체가 자바 섬의 토착



문화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로부드르에 새겨져 있는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웃 리가 카누이다. 이는 오스트로네시아족(인도네시아) 고유의 것이고, 보로부드르에 나온 고상 가옥 건축도 자바적인 표현이다.” 라고 한다.

이외에도 “보로부드르는 인도의 불탑 혹은 사원과는 전혀 다른 건축물이다. 자연의 언덕 위에 흙을 성토하여 산을 만들어, 그 표면에 석재로 치장한 피라미드형의 건축물이다. 보로부드르를 단지 인도의 불교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 미술의 원류인 인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보로부드르와 같은 형태의 스투파는 인도 문화권에서 볼 수 없다. 보로부드르가 불탑이라고 한다면 인도에도 없는 불탑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자바에 전래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중수 교수가 제기하였다. 이처럼 보로부드르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말들에 고개가 숙여졌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필자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더 많은 후학이 생겨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가중수 교수 프로필>

1958년 생
1993년 3월 동지사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화사학 전공)
박사 후기 과정 수료
현재 일본 슈지츠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주요 학회 및 사회활동>

일본 슈지츠 대학 국제교류센터센터장
(~2011년 3월)
태국 탐마삿 대학 객원 교수 역임
한국문화재단 연구위원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문화사학회, 일본 태평양학회 이사, 일본 민족예술학회, 일본 비교문화학회, 한국 일본문화학회 이사, 오카야마현 인권 교육추진위원, 오카야마 아시아 국제센터 센터장, 계간 한국의 고고학 편집위원, 한국 고대학회, 한국 동남아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

<저서>

“한국 전통 문화론” (2008년, 일본어)
“Island of Gods” (일본어)
“지금도 살아 있는 지식묘 사회 숨바 섬” (2009년)
“공생사회를 향해서-재일한인사회” (2010년, 일본어)
“신들의 섬 발리” (2010년)
“한국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2010년)
2011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자바의 사원과 유적” (2012년)
“보로부드르-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2013년)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의 역사와 민속” (2014년)
“동인도네시아의 거석과 건축문화” (2015년)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무료 투어

체대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 가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상 :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선착순 25명

장소... Jl.Merdeka Barat No. 12 Museum Gajah (코끼리 박물관)
모나스 광장 근처

일시... 2015년 10월 17일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전후

인도웹과 Pagi 앱에 댓글을 달아 신청해주세요
헤리티지 밴드에서도 신청받습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안 섹션

제 32차 헤리티지 탐방 센톨 둘레길 산책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반
장소 : 센톨 시티 톨 게이트 왼쪽 200미터 KFC
회원 가입 필수

회원 가입 갱신 기간: 연회원
(2016년 8월까지 유효)

회비: 연 65만 루피아(가족4명) (35만 루피아 / 개인) 회비는 전액 문화지원 및 단체 후원에 뜻 깊게 사용됨

신청접수 : 헤리티지 밴드

준비물 : 우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초콜릿), 과일, 카메라, 모자, 썬글라스,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 수건, 반바지

회비 : 5만 루피아

산행 일정 (변경 가능)

9 : 15 입구 도착 산행 시작

11 : 30 산행 마치고 점심 식사 시작

1 : 00 해산

헤리티지 도서관 Nida(영어,인니어)
021)572 5870

아세안 경제 포럼 개최



부제: 12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이후 아세안

강사: 서정인 주 아세안대표부 대사

일시: 2015년 11월 12일(목) 10시~12시

장소: 헤리티지 도서관(Plaza Senayan,
Sentral Senayan Satu 17F1)

공동 주최: 세계한인 무역협회(월드옥타)/헤리티지 코리아안섹션

신청접수: sungkc@gmail.com / 헤리티지 밴드

채인숙작가, 제4회 오장환 신인문학상 당선

한국의 대표적 계간문예지인 실천 문학과 충북 보은문화원이 주관하는 ‘제4회 오장환 신인 문학상’ (운영위원장: 신경림 시인)에 인도네시아 교포인 채인숙(44세,여) 씨가 ‘1945, 그리운 바타비아’ 외 5편의 시를 공모하여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오장환 시인(1918~1951)의 시적 성과를 기리고, 부박해지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시의 현실적 위의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한 ‘오장환 신인 문학상’은 9월 18일 오장환 문학제가 열리는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시상식을 가졌고, 당선자인 채인숙 시인은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배경으로 쓴 당선작(1945, 그리운 바타비아)은 식민지의 기억과 낭만적 사랑의 기억을 이국적 풍경과 잘 섞어냈다”며 “화려하면서도 쓸쓸한 정조를 조탁하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식민 지배로 파국을 맞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그 사랑이 끝난 극장에서 그림자극으로 다시 상연되고, 그것이 다시 지금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절묘한 확장에서 투고자의 저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인 채인숙 시인은 17년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고 있으며 당선작 제목인 바타비아는 자카르타의 옛 이름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정지용 시인의 문하에서 활발한 시작 활동을 벌이다가 모스크바에서 죽음을 맞이한 오장환 시인의 삶과 시는, 350년 이상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세월을 살며 향수병을 견뎌온 그녀에게 시대를 넘어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다가왔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 이러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산문에 가까운 문장이지만 시적 리듬을 잃지 않고 있으며, 진술을 주되게 사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하는 솜씨가 기성 시인에 못지 않았다”며 당선 이후 그녀의 활동에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



채 시인은 한국에서 방송작가와 카피라이터로 활동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황금을 캐는 집시’, ‘한,인니 수교 40년, 위대한 도전’ 등의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며 KBS 서울 프라이즈에서 다큐멘터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한.인니 문화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돕고 있다.

대학 시절 모 일간지 신춘문예 본심에 올랐으나 탈락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 시를 응모했다는 그녀는 당선 소감을 통해 “오장환 시인의 이름으로 주는 이 어마어마한 상을 제가 덜컥 받을 자격이 되는지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저는 시를 쓰기 위해 절망의 끝까지 가 있는 시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던지고 참혹하게 견디는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시를 쓰고 있노라고 호들갑을 떨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당선이 그동안 혼자 읽고, 혼자 쓰고, 혼자 지우며 시를 써 온 지난 세월에 대하여 실천문학과 심사위원 여러분이 주신 격려의 응답이라 여기며,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천천히, 열심히 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채 시인의 당선작은 실천문학 겨울호에 당선 소감과 함께 실릴 예정이다.

‘코칭 리더십, 셀프 리더십’ 특강 열려 강사 : 김윤석 디스커버리러닝 대표

지난 2015.9.30.(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하 JIKS, 교장 김승익) 나라홀에서는 학부모 및 JIKS 교사를 대상으로 디스커버리러닝(경영교육컨설팅) 김윤석 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먼저 ‘자녀의 성공적인 삶과 소통을 위한 부모의 코칭 리더십’을 주제로 90분간 진행된 학부모 대상 강연에서 김윤석 대표는 변화의 중심에 ‘부모(특히 어머니)’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획일화된 부모의 성공 방정식을 자녀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자녀의 꿈에 관심을 갖고, 꿈이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꿈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풀어내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막연한 ‘소망’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다른 사람 앞에서 10분 정도 발표할 수 있는)’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꿈을 꾸는 법, 꿈에 도전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녀에게 맞는 소통방법을 먼저 파악할 필요성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등 다섯 가지 소통을 위한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고 준비해온 질

문지를 통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자가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를 진단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부모 대상 강연에 이어 진행된 JIKS 교사를 대상으로 ‘Bravo, My Life! - 자기 개발을 위한 셀프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사, 교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아울러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도전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함을 주변 이야기 속에서 찾아 보여줌으로써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강연에 참석한 학부모, 교사들은 삶의 주체로서는 물론 부모 혹은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김윤석님은 디스커버리러닝(경영교육컨설팅) 대표로 코린도 임직원 교육을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으며 내년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삼성, 현대, 대우, 기아, LG, 쌍용, 포스코 등 굴지의 한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으로서 혹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리더십,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능력, 주인의식, 도전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강연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 개발을 해오고 있다.



코리아데이를 통해 한국을 배우다

2015년 9월 25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JIKS Korean Day 행사가 열렸다.

초중등 각 급별로 진행된 본 행사는 나래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초등 개회식에서는 사하빏 아낙 성금전달식, 아롬바 공연, JIKS 합창단 공연, 해금연주자의 축하공연, 1학년 학생들의 귀여운 꼭두각시 춤, 2학년 태권무 공연과 5,6학년 학생들의 태권도 격파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개회식에 이어 학생들은 JIKS 교정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 김치 만들기, 떡 만들기, 비석치기, 팽이치기 등 18개가 넘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였다.

중등 1부 행사로는 사물놀이, 아롬바, K-POP, 한복 Festival, 인도네시아 자매학교의 축하공연이 나래홀에서 있었고, 각반 교실에서는 전통 옷놀이와 제기차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2부 행사로는 반별 대항 씨름대회가 산마루강당에서 열띤 응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타국의 땅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학생기자 김교빈)

2015 코리안 클럽 추석파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코리안 클럽이 9월 26일에 추석파티를 개최했다. 코리안 클럽의 꽃이라고 불리는 추석파티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이다.

추석파티에 앞서 14일부터 2주일 동안 자신이 뽑은 마니또에게 다양한 미션과 간식을 주며 추석파티에 기대감을 높였다. <나의 얼굴 그려주기>, <자신의 표현하는 노래가사> 그리고 <나를 보면 생각나는 간식> 등 재미있는 미션들을 통해 학생들은 좀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추석파티도 한국대표 음식들을 모티브로 삼아 조를 짜 <행동으로 말해요>, <젠말놀이>,

<복불복> 등 게임을 통해 1등하는 팀에게는 달콤한 상품들과 뒷청소 면제가 주어졌다. 중간중간 각학년의 여학생들의 춤, 남학생들의 밴드, 솔로 무대까지 더해져 추석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더 띄워줬다. 12학년 밴드를 마지막으로 2015년 추석파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3년째 코리안클럽을 책임지고 있는 Mr. Chutkow는 코리안클럽은 다른 클럽들과 달리 UN Day 이외에 행사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면서, 추석파티가 한국학생들 뿐만 아니라 타국학생들도 참가해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내년 추석파티는 어떤 무대와 게임들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집중! 이 사람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28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2015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고 세계 20개국의 지역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금번 모임에서 박현순 인도네시아 KOWIN 회장이 세계 각지역을 대표하는 담당관(지역회장)들이 선출하는 세계 KOWIN 제 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인뉴스는 신임 박현순 세계 KOWIN 회장을 만나본다.



제 7 대 세계 KOWIN 박현순 회장과의 인터뷰

Q.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이란 어떤 단체인가

-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은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의 권익향상과 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발족 되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들의 상호교류확대, 네트워크 구축과 이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한민족 여성 리더 양성 그리고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통한 세대간 지역간 연대 강화,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통한 성 주류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민족 여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도 노력하고있다.

Q. 지난 8월말 세계 각지역담당관(지역회장)에 의해 제 7대 코윈 세계 회장으로 선출 될 소감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 지역 대표들은 거주국가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코윈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회장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에 각 지역 간 네트워킹, 사업 공유, 정보교환, 연계행사 등을 통하여 코윈의 활동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있다.

코윈 인도네시아는 지난 2년간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아서

매우 보람이 있었고 그 결과 각국 지역 대표들께서 신뢰를 보내 금번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Q.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사업 계획은

-지난 2년 임기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KOWIN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위상 확립에 주력하였다. 주요사업으로 현지 진출 한국 대기업인사부장 초청 생생토크,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각종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한복 패션쇼, 여성 비즈니스엑스포, 명강사 김미경 초청강연, 주니어캠프, 헤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과 그외 작은 코윈의 행사들이 지난 2년간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향후 2년은 코윈 회원들을 위한 질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하겠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차세대 분과로 회원들의 활동을 세분화하여 희망하는 분과에서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회원들간의 사업과 사회 활동에 직접 도움을 드릴수 있는 연대강화와 상호교류에 중점을 두고자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현순회장에게 감사장과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Q.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해 전문가로서 한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리틀램유치원과 작년에 오픈한 국제 키즈아일랜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오픈한 키즈아일랜드 유치원의 경우는 순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 되어 현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국 커뮤니티 및 미디어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어 감사하다.

현재 리틀램과 키즈아일랜드는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과 MOU 체결을 위한 서류교환이 완료되었고, 다음 학기부터는 UNJ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실습 및 강의를 맡아 진행하며, 현지 각종 세미나에 강연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아스미대학에 유아교육학과 및 한국어학과를 내년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이 높아져 정식 교육을 받은 유치원 교사가 배출되는 기초 작업을 제가 주도하며 추진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에게 부탁 말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각국에서 살고있는 여성인재들의 숨어있는 잠재력 발굴과 이의 개발 활용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궁무진한 자원이 될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여성들의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는 모델, 차세대 리더육성과 세대간 소통, 멘토링,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파워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여성분들이 코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 우리 모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코윈 소개>

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세계 속에 하나 되는 한민족 여성 단체

코윈(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은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여성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코윈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외 한인여성네트워크 활성화로 한인 여성들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와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제고, 실질적인 상호이익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여성인적자원 발굴과 한인 여성의 연대강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2015년 8월 25일~28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글로벌 코리아 70년, 한인 여성과 함께 열어갑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들 576명이 결집해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해외 2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코윈 인도네시아는 명실상부 제1의 여성단체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박현순 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코윈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인재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상호네트워킹, 차세대와의 소통 및 멘토링, 전문성 발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여성의 능력 및 잠재력 계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실례로 6기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기획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인 여성 비즈니스 엑스포', '행복충진프로젝트', 동포 및 다문화 자녀의 한글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인니한글학교 교육프로그램', 차세대육성을 위한 '주니어 리더십 캠프', '해비타트(Habitat) 사랑의 집짓기 봉사' 등에 이어 2015년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 지원 '2015년 KOWIN 차세대 UDP&PCDP 컨퍼런스' 등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코윈 회원은 정회원, 차세대, 주니어(고등학생) 등 세 단계의 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전문직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정보 및 노하우를 나누고 회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코윈 차세대는 유학생, 어학연수생과 사회초년생 등으로 이루어져 정회원 간의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코윈 주니어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진학상담 및 전공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순간 & 영원



[사진] Frank Winkler / Deutschland

하나를 찾으려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찾으면서
또 한 계절이 가고 오네

지난 계절의 수입과 지출이 잘 맞아서
빛진 마음 없이 평안하기를
작은 행복도 덤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오색나비 한 마리
청개구리 풀빛 이마에
다시 만날 약속의 편지를 쓰네

뜨거운 발을 식히는 가을연못
그 눈이 참 깊고 고요하네



2015년 9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금리 동결에도 루피아화 환율은 '출렁' 외환위기 우려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 외환위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이미 상당수 신흥국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외환위기 수준을 뛰어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추락한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을 발표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된 뒤 안도 분위기 속에서 진정되는 듯 하더니 곧 달라진 게 없다는 인식으로 신흥국 환율 상승세는 다시 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18일 잠깐 멈칫하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상승 폭도 17.5%에 이른다.

23일 기준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은 전날보다 3.99% 상승한 14,662루피아로 거래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대등한 수준이다.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외환위기 당시 최고점 16,525 루피아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인도네시아 외환시장에서는 중앙은행(BI)이 심리적 지지선인 현재 수준을 방어하려고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 금리 관련 불안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이날 22일보다 약 3%나 오른 4.36 링깃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8일 기록한 고점(4.34 링깃)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중인 지난 1998년 1월에 기록한 4.7700링깃과도 차이가 좁혀졌다.



이슬람교 변영정의당(PKS)은 최근 정부가 지역 정부에 주류 판매 자치권을 줄 것이라는 결정에, 이익 증가를 위하여 국가의 도덕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PKS 전당 회의 간부 자줄리 주와이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짐이 최근 무역부의 내국 무역 심의관에 의해 발행된 법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고 밝혔다.

PKS당 주류 규제 완화에 반발

작년 무역부 장관이었던 라흐맛 고벨에 의해 인도네시아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난 8월에 있었던 내각 개편으로 인해 무역부 장관이 고벨에서 토마스 림봉으로 교체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의 주류 규제 역시 강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슈퍼마켓과 고급호텔에서 알코올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 라고 자줄리는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정부가 더 많은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류 판매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양처럼 알코올음료가 자유롭게 판매되도록 뒤서는 안된다” 고 덧붙였다.

ADB 내년도 인도네시아 실업률 높아질 것으로 예측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노동인구 증가와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내년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에디몬 ADB 인도네시아 부소장은 “내년도 노동 시장에 신규 300만 명이 유입되리라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모두 흡수할 수는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부소장은 “내년 고용 환경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구직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성장률이 5.5%를 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ADB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했던 예상치(5.5%)보다 0.6% 하향 조정된 것이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2월 시점 노동 인구는 1억 2,830만 명으로 실업률은 5.8%였다. 전문가들은 BPS의 공식 데이터는 노동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취업자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Tangerang 노동자 최저임금 310만 루피아 요구



지난해 11월 25일 수 천명의 땅으랑 노동자들이 반뜰주 땅으랑시 떠나명기 수디르만 대로를 점거하고 연료가 인상정책 반대와 함께 내년도 시군최저임금(UMK)을 310만 루피아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인접한 반뜰주 땅으랑군 노동자들은 22일 내년도 지역 최저임금(UMK)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310만 루피아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땅으랑 노동자 연맹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제시한 임금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정부가 전통시장 등지에서 모든 물가 조사를 실시한 뒤 임금을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땅으랑 지역 관계자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땅으랑 지역의 최저임금은(UMK) 2014년 대비 11% 증가한 271만 루피아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이다. 신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땅으랑 지역 최저임금이 300만 루피아를 넘어서면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니정부 제2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법인세율은 18%로”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29일 제2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등 행사 참석을 위해 대통령궁을 방문했다. 다르민 장관은 제1차 경제정책패키지는 최근 집중조명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나 루피아화 가치 하락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패키지와 노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9일, 이달 초에 발표한 제1차 경제정책패키지에 이어 두 번째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1차 패키지과 다르게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증점적으로 다뤘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발표에서 “공업단지(Kawasan Industri)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 고 말했다.

이어 투자조정청(BKPM)의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도 일반적인 투자허가는 기업의 납세번호(NPWP)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3시간 만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세율을 기존 25%에서 18%로 인하할 방침이며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발리서 개막한 ‘제 13회 세계 화상(華商) 대회’에 참가한 루훗 뽀자이딴 인도네시아 정치법무안보조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루훗 장관은 이날 도로 정비 외에 항만과 공항 건설, 전력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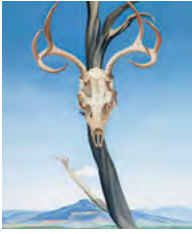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투자에 5,450억 달러가 주입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1,200억 달러를 해외직접투자(FDI)로 충당할 계획을 밝혔다.



조지아 오키프 (Big Apple, Apple Family)



작가 : Georgia O' Keeffe (1887~1986)
작품 : 사과 가족 (Apple Family-2, 1920)
oil on canvas, 21 x 26 cm



아담과 이브의 사과. 트로이 전쟁의 황금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스티브 잡스의 사과까지.....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사과가 있다.

조지아 오키프의 Big Apple, Apple Family.

오키프는 1887년 미국의 대평원 농장에서 태어났다. 성공한 아버지와 딸들의 교육에 열심인 어머니 아래서 맑은 예술적 재능을 키우며 성장했다. 열 두 살에 예술가가 되기로 작정한 후 평범한 이십대를 보냈다. 초기에 내면의 풍경을 추상적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린 수채화와 드로잉, 평생에 걸친 유화 작업들을 보자면, 그의 삶의 방식과 작업은 늘 일치한다. 즉 철저히 자기자신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미국으로 모여든다. 정부차원의 미술지원정책에 힘입어 세계 미술의 주도권은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미국 화가들이 새로운 미술에 눈을 뜨면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듯 다양한 현대 미술 사조들이 등장한다. 액션 페인팅을 필두로 추상 표현주의, 색면 추상, 차가운 추상, 팝 아트, 옵 아트....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경향의 흐름은 뉴욕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침병역할을 한 추상표현주의보다 30여년 전에 오키프는 추상 표현주의 풍의 그림을 그렸다. 여류화가가 이처럼 커다란 변화의 토양이 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키프는 미국의 스타급 화가이면서 소더비 경매에서 여류화가로선 최고의 그림값을 기록한다.

오키프의 작업에는 일관된 몇 가지의 주제가 있다. 내면의 풍경을 그린 추상표현주의, 단순하게 확대된 꽃그림, 동물의 뼈, 영적(靈的) 색감의 풍경화이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확대된 꽃그림은 여성성을, 사막을 배경으로 그린 탈육(脫育)된 동물의 뼈는 남성성을 보여준다. 사실 오키프의 작

업처럼 삶도 그렇게 극단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삶의 행적들이 꽤 중성적이다.

서른 즈음 오키프는 당대 최고의 사진 작가이면서 영향력있는 '갤러리 291'의 주인,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1946)를 만나게 된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그들은 만나고 두 사람의 개성과 예술성과 에너지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낸다.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녀는 신데렐라처럼 시골 미술교사에서 뉴욕 한복판으로 화려하게 입성한다. 뉴욕의 문화 권력자 스티글리츠의 아름다운 모델이자 전위적인 화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맨하탄의 고층 아파트에서 뉴멕시코의 사막으로 자리를 옮긴다. 노년에 문명과 동떨어진 산타페에서의 단순한 삶과 예술에 정진하는 모습은 사막의 은수자를 연상시킨다.

그의 그림들 가운데서 <사과 가족> 그림은 매우 의미있게 다가왔다. 더없이 화려한 커다란 꽃과 신비로운 분위기의 풍경과 동물의 골격을 그린 작업들 중 이 사과 그림은 그녀의 삶 자체로 느껴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면의 힘으로 방향을 잃지 않고 한 가지에 정진한 삶과 작업이 이처럼 Big Apple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희다 못해 푸른 기가 도는 옥양목 위에 갓 따서 씻어놓은 사과들. 크고 작고 빨강고 파란 사과 가족들. 좋은 토양에서 충분한 양분과 햇빛을 받으며 성장하여 꽃 피우고, 시기적절한 비바람과 하늘과 공기가 이렇게 과즙 물씬한 사과를 만들어냈듯이 오키프의 삶과 예술도 그랬다.

오롯이 자신의 마음 가는데로 충실하게 삶과 일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한 세기를 살다간 여류. 미국이 자랑할만한 Big Apple 아니겠는지.

* Big Apple: 뉴욕의 별칭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어느 모임에서의 단상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즈거운 만남으로 기억되는 모임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그 뒤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많은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스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만남을 통해 서로 기뻐하고 쓰다듬으며 함께 화합하고 교류하는 풍경은 아름답다. 이곳 인도네시아의 한인들도 한인들만의 공동체로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정감을 나누는 행복한 한인사회로 거듭나고 있다. 요즘의 젊은 시대는 서로 만나지는 않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기계 뒤에 숨어 감정은 걷어내고 인조인간처럼 만나고 대화한다. 그나마 페이스 북이나 블로거, 인터넷카페는 좀 더 열린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상의 만남이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무언족(無言族)이 되어 혼자서 기계와 보내는 시간만 늘어날 것이다. 살가운 인간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잘 알려져 있지만 예전엔 한국에 가면 ‘인도네시아 살

아요.’ 하면 인도쪽으로 알아듣기 십상이었던 나라, 그렇게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나라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자체가 가벼운 인연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고 있다. 부지런한 근성으로 한국은 물론 인니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한인들만의 탄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타국에서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한인들만의 끈끈한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행복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남자들은 주로 학연, 지연, 직장 등으로 연결된 모임으로 골프나 취미활동을 함께하고 친분도 나눈다. 부인들 또한 자녀들의 학교모임이나 학연 및 종교모임, 골프 등으로 해외생활의 적조함을 달래면서 오랫동안 든든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부부도 주로 학연모임과 오래된 지인들과의 모임, 종교와 관련된 모임 등 여러 모임에 동참한다. 얼마 전에도 한 모임에 참석했다. 종교모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 년에 두어 번 모이는

남편의 대자대부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대부님의 생신도 곁들여진 만남이라 그런지 각자 준비해온 관악기의 선율로 축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만남>이란 서로가 반갑고 가슴을 열고 다가간 만큼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살아온 세월만큼 연륜이 깊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재미있고 경험담도 귀에 쑥쑥 들어온다. 물론 살아가면서 반가운 만남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아쉬운 이별도 있겠지만 말이다. 관악기의 연주가 끝나자 이번에는 축하노래도 이어졌다. 남편선배 되시는 분의 <서른 즈음에> 라는 선창 곡은 감동과 울림이 있어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어쩌면 오랫동안 가슴 짙은 순간으로 기억될 듯싶다. 이미 알고 있는 노래인데도 그분의 훌륭한 가창력으로 듣고 있자니 모두의 분위기는 서른 즈음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세월과 나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에 나이를 먹고 젊음의 모습이 허물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의 순리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청춘의 시간이 있었기에 한 시절이 사라짐에 대하여 그리 서글퍼 할 일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보며 세상을 관망할 수 있는 지금의 이순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돌아보면 <서른 즈음에>의 노랫말처럼 가슴 떨리는 공명의 파장, 파노라마 같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이렇듯 애뜻한 선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헤아릴 수 있으니 말이다. 진부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믿는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생명, 재산, 지위,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은 순간이요, 또 없어질 운명의 요소들이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해도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소중한 자산으로 남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진실한 사람이 아닐까.

살아오면서 여러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모두가 스승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좋았던 사람, 나빴던 사람, 모두가 나 자신을 들어

다보는 거울이 되었고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아무래도 혼자 고립되어 살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그립고 사람이 그립다고...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사람들과 부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모임을 자주 갖는 것도 정서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중년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중성이 되어 의사소통도 잘되고 모난 성품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진다. 어쩌면 더불어 사는 따뜻함이 더 그립고 절실히 진다고나 할까. 젊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에 신경 쓰느라 모임이 있어도 제대로 참여할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이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차 외롭고 고독하다는 걸 깨닫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화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가정과 모든 개인은 물론이고 인류와 국가도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기도 한다. 인니의 밤하늘이 환하고 맑게 비추어 주었다. 9월의 끝자락에 한가위 보름달이 걸려있다. 사람 좋은 얼굴 모양으로 크게 웃고 있는 것만 같다. 처음엔 해외에서 바라보던 둥그런 보름달이 참 신기했었다. 내 나라에서 바라보던 달과 너무나 똑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듯 하늘을 보고 또 보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보름달을 바라보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평온한 여유로움이 스며져 있다.

보름달을 보고 있으면 내면의 환한 빛을 다 내어 주어 한 치의 그늘도 없는 투명한 삶을 보는 것만 같다. 큰 소원 하나를 담아 마음속으로 염원해본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보름달처럼 둥근달이 떠서 한줌의 어둠도 없었으면...

길지 않은 인생이기에 모임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충만함으로 가득하고 서로가 영원히 잊지 못할 따뜻한 벗이 될 수 있기를...



Taman Fatahillah, 해맑은 웃음 속 배겨져진 상처

장인우 (Pelita Harapan 12학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자카르타의 이름은 바타비아(Batavia)라고 한다. 바타비아의 중심이 되었던 파타힐라(Fatahillah) 광장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커다란 화합과 소통의 장인 동시에 구 바타비아의 역사가 서려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카페 바타비아는 2층으로 이루어진 1800년대 풍의 카페이다. 이 역사 깊은 건물은 1805년~1850년 동안 네덜란드 총독의 거주지로 설립되었다. 그 후,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1993년 보수공사 후에 카페로 오픈되었다. 1800년대의 고풍스런 분위기를 테마로 하고 있으며, 벽 곳곳에는 전 카페주인장의 수집품인 유명 인사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카페 2층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재즈 음악에 심취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800년대 바타비아 시절의 네덜란드인들의 낭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곳 2층에서는 넓은 파타힐라 광장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오전 10시에도 벌써 산책 온 친구들과

연인들, 견학 온 학생들, 물건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어느 관광지와 다름없이 북적거리면서도 햇볕까지 더해하니 더욱 활기차게 보인다. 광장 한 쪽에는 16세기 포르투갈 대포도 전시되어 있다. 포신 앞쪽에 달려있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있는 엄지 표시의 손 모양은 상대에게 야유하는 형상인데 당시 인니 인들에게는 출산, 영광, 힘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스우면서도 호쾌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다.

카페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왼쪽에는 인도네시아의 현대 미술사를 전시해놓은 미술 및 도자기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스풍의 네오클래식 양식의 이 건물은 1870년에 세워져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절에는 사법 기관으로 사용하다가 다양한 역사를 거쳐 1977년 도자기 박물관의 역사로 개관한다. 1990년 미술과 도자기 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미술의 역사는 남부 슬라웨시 Leang-Leang 동굴 벽화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무려 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그려진 손바닥 문양에서는 ‘액운을 막는다.’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느 문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복을 기원하는 경향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도자기는 마자빠히트(Majapahit) 시대부터 발달하였다. 다른 전시실에 전시된 중국 및 유럽 산 도자기는 그릇, 정수기, 잔 등 실용의 목적을 중시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도자기는 대체로 가면, 모형 등 장식품이 대부분이었다.

식민지 시절 예술 활동이 탄압받았던 이유로 1900년대 이전 인도네시아 회화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라덴 살레(Raden Saleh, 1800~1880)를 인도네시아 근·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유럽에서 그림을 공부한 그는 유럽식 화풍에 딱딱하고 선명한 인도네시아의 화풍을 접목시켜 통칭 ‘라덴 살레 화풍’을 창조해낸다.

라덴 살레 외에도 식민지 시절 수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남겼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 말기(1925년~1938년)의 화풍을 무이 인디(Mooi Indie, 아름다운 인도네시아)라 칭하여, 인도네시아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낭만파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줄기는 잘라도 뿌리는 꺾을 수 없다는 듯, 식민 지배의 암울한 현실 아래에서도 인간의 행위는 억압될지언정 정신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도네시아 그림의 예술성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저항정신은 일본이 지배층으로 들어옴으로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938년부터의 화풍은 Persagi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정신을 일깨우는 화풍을 띄고 있다. 이 때의 대표적인 작가가 “Painting is a visible soul”이라는 말을 남긴 수조요노(S. Sudjojono)이다. 사회상을 통렬하게 비꼬는 그림을 다수 제작하여 인도네시아의 정신을 일깨운 화가로도 추앙받는다. 수조요노와 라덴 살레의 동상이 전시관 입구에 세워져 있다. 그 밖에도 Otto Djaja, Hendra Gunawan 등 여러 반일 저항 화가들의 작품도 있었다. 창의적

이면서도 몽환적인 스페인 작가 Antonio Bianco의 작품 또한 같이 전시되어 있었다.

독립 이후에는 갓 일어난 인도네시아 공화국에서 사회 참여적 작품이 다수 등장한다. 수조요노는 이 때에도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 작품을 남겼다. 또한 1965공산당 쿠데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유명한 그림이 이 사람의 작품이다. Hendra Gunawan은 서양과 동양의 화풍을 조화시켜 인간의 얼굴을 비롯하여, 대상을 매우 정성스럽게 묘사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식의 거친 화풍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민중을 사랑하는 감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은 헨드라였지만, 공산당 쿠데타에 가담하여 감옥에서 암울한 13년을 보낸다.

공산당 쿠데타 후는 신질서시대로 불려, 인도네시아 특유의 화풍과 정서가 드러나면서도 다른 스타일의 다양한 화가들이 등장한다. Basoeki Abdullah는 대통령 궁 화가로서 지도자들의 그림, 특히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대통령 관저 화가다운 묘사력을 보여주나 후 그림 도둑에게 피살당하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한다. Affandi는 ‘인도네시아의 고흐’라는 별칭을 가진 인상파 화가로, 정식 교육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대적으로 야성적이고 날카로운 화법으로 자신의 정열과 자연의 기를 결합한 매우 추상적인 작품을 남겼다. 이외에도 닭, 고양이 그림으로 유명한 Popo Iskandara 등의 그림이 있다. 한편 Eria Supria, Heri Dono 등, 도시화의 폐해를 고발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사회참여 작가들도 많이 있었다.

바타비아 카페에서 2층에서 마주 보이는 아이보리색의 커다란 건물이 자카르타 역사 감옥 박물관(Museum Sejarah Jakarta)이다. 이 건물은 바타비아 시 건설의 주역인 2, 4대 총독 인 쿤(Jan Pieterszoon Coen)이 감옥과 함께 지은 건물로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의 시청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총독부인 셈이다. 우리의 경우는 옛 굴욕의 상징을 형체도 남기지 않고 밀어버린 반면 인도네시아는 그것도 역사이다,

또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 건물을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네덜란드 인들은 바타비아를 네덜란드의 한 도시로 생각했다는데 그런 이유로 이 건물은 암스테르담 궁전을 모델로 지어졌다고 한다. 야심찬 정복자들의 결혼식을 비롯한 온갖 활기찬 행사들은 이 건물 앞, 파타힐라 광장에서 벌어졌다. 반면 죄수들을 처형하던 곳이기도 하다. 광장 계단 양 옆은 지하도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다름 아닌 고문실이다. 참으로 행복과 피가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장소가 아닌가 싶다. 왜 잔혹한 행사와 행복한 행사를 같은 곳에서 행했는지는 도덕상의 의문점이다.

건물 안에는 구 바타비아의 상징물인 사자 동상과 함께, 초대 총독 쿤의 사진이 딱하니 벽에 매달려 당시 네덜란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히 악독하여, 본국에서도 그 통치의 가혹성 때문에 종종 소환 명령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똑같이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나라도 얼마나 수난을 당했는지 대략 유추할 수 있으리라.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큰 벽에는 구 바타비아의 전도와 함께 자카르타 시의 간략한 역사가 쓰여 있다. 자카르타는 본래 항구 도시로, 5세기 초

최초의 힌두 왕국 Tarumanegara가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던 곳이다. 이 건물에는 당시 왕의 힘을 시바 신에 비유하여 그 발자국을 찍어놓은 돌과, 흰 코끼리의 발자국을 찍어놓은 돌도 전시되어 있다. 그 당시 왕국의 기념비문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이 도시는 7세기부터 순다 왕국령 하에 순다 끌라빠(Sunda Kelapa)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자고로 당시 이 도시의 특산물이 야자(Kelapa)였다고 한다. 1522년 순다 왕국은 서부 자바에 있던 강력한 이슬람 왕국인 반탄 왕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순다 끌라빠와 후추 무역의 자유를 포르투갈에 내주었다.

그 당시의 협정을 새긴 Padrao Stone 또한 전시되어 있다. 1527년, 반탄 왕국은 포르투갈과 순다 왕국의 연합군을 쳐서 몰아내고 순다 끌라빠를 정복, 이 도시의 이름을 자야카르타(Jayakarta, 완벽한 승리)로 명명했다. 당시 군대를 지휘했던 반탄 파타힐라 왕자의 사진과 그 옆 반탄 왕국이 포르투갈을 격퇴했던 대포의 정교한 조각 또한 그 안쪽에 전시되어 있다. 그 대포는 유럽에서 가져온,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한 첫 대포라고 한다. 1619년 네덜란드에 의해 자야카르타가 파괴되고 쿤 총독이 이 도시를 바타비아로 명명한다. 그 후 구 일본 제국 지배하에 자야카르타를 줄여 Djakarta의 이름을 되찾았고, 추후 개정된 인도네시아어 표기법에 의해 Jakarta가 된 것이다. 야자의 도시, 순



다 끌라빠, 후 완벽한 승리의 도시, 자야카르타의 옛 영광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1층이다.

2층에는 바타비아 시절 사용하던 각종 가재도구를 그대로 전시해 놓아 당시의 분위기와, 네덜란드 정복자들의 야망을 생생히 느껴볼 수 있다. 정복자의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바타비아 문양, 인도 양식, 중국 양식을 혼합한 가리개도 전시되어 있다. 정복자의 야망을 드러내는, 네덜란드 여왕을 전쟁의 여신으로 묘사한 가리개(병풍)도 있다. 2층 발코니, 옛날 총독이 시민들을 향해 연설을 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서 있었던 창가 밖으로 내다보면 카페 2층처럼 파타힐라 광장이 한 눈에 보이며, 총독의 야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야심의 상징물과 함께, 이 정복자들이 바타비아에서 저지른 악행들 또한 설명으로 나열되어 있다.

박물관 뒤뜰. 정치범을 수감하던 우물 감옥이 있다. 감옥 안에 죄수를 집어넣고 거머리를 집어넣는 식으로 고문을 했는데, 그러다 죄수가 죽으면 자바 해로 시체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죄수가 없을 때에는 군사 이동 통로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뒤뜰 계단 밑에 있는 자그마한 방들은 남자 감옥으로, 안에는 쇠구슬과 족쇄로 보이는 쇳덩이가 이 여러 개 방치되어 있다. 허리 펴고 서 있기도 힘든 이 방의 죄수들은 사각형 한 칸에 한 명씩 50kg 쇠구슬을 발에 차고 25kg 팔 족쇄를 차고 수감생활을 했다고 한다. 한쪽 구석에 비치된 여자 감옥은 더욱 비참하다. 허리를 펴기는 커녕, 햇볕도 안 들어오고 우기 때는 물이 찼다고 한다. 지배층의 야망이 고스란히 느껴지던 윗방과 피지배층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랫방이 너무 대조를 이뤘다.

뒤뜰에는 상업의 신으로 여겨지던 헤르메스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1740년 10000명이 죽었던 중국인 대량 학살도 이 곳에서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에르베르펠트의 묘비도 이 곳에 있다. 정리하자면 이곳은 지배자들의 눈부신 야망과 그들이 지탄받고 반성해야 할 어두운 역사를 한 곳에 집합해놓은 건물이라 할 수 있겠다.

카페 바타비아에서 오른쪽에는 와양 박물관이 있다. 이 건물은 1640년 네덜란드 군과 유럽 시민들을 위해 설립된 Old Dutch Church. 한마디로 구 교회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1808년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고, 1912년 네오 문예 부흥기 양식으로 재건축되어 창고, 사무실, 과학 문화 협회, 과학 예술 연구원으로 사용되었다. 드디어 1936년 문화 유산으로 채택되고 다양한 역사를 거쳐 1975년에 이르러 와양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와양은 인형을 뜻하는데, 자바에서는 와양 그림자극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박물관에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 각국에서 온 3000개 이상의 와양과 2000여점의 가면, 와양극에 사용되던 가물란, 역사적 문헌, 지도, 옛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전통으로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에는 가물란과 스크린과 조명과 함께 와양극이 공연된다. 정교하고 빠른 손동작에 의해 움직이는 와양들은 미동도 없는 듯 손만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음악에 맞춰 급격한 움직임으로 커다란 동작을 취하는 등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잠잠하고 조용하면서도 굳건한 정신을 내면에 숨겨놓는 인도네시아의 정신은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물관 탐방을 마친 후 낮 12시에 카페 바타비아 2층으로 돌아와 다시 광장을 바라봤다. 여전히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해는 내리쬐다. 건물들을 둘러보기 전에는 그저 평화롭고 활기차 게 느껴지던 파타힐라 광장에, 잠재된 순다 끌라빠의 풍요와 자야카르타의 영광, 그리고 바타비아의 야욕과 뼈저린 고통이 있다. 지금 보이는 자카르타의 희망과 평화 안에 숨겨진 지독한 상처가, 우리나라의 뼈저린 역사에서도 같이 느낄 수 있던 민족의 숨겨진 상처와 불굴의 의지가 은은하게 드러난다.

꼬따 뚜아 탐방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진행된다. 다시 탐방에 참여하고 싶다.



바다 향기로 가득찬 해양 박물관 (Museum Bahari)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해양 박물관은 식민지 시절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향료, 커피, 후추, 차, 구리, 주석 등과 직물을 보관하고 포장하는 창고였다. 순다 끌라빠 항구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1652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다. 1718년, 1719년, 1771년 3차 복원을 했고 복원 년도가 입구에 적혀 있다. 서쪽 창고와 동쪽 창고로 나누어져 있으며 1,2,3층으로 이루어진 서쪽 창고는 해양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통치기 때는 군수품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독립한 후에는 국립전력발전소(PLN)와 전화·전보국(PTT)의 창고로 사용했다. 1976년에 자카르타 정부에서 4차 복원을 했으며, 1977년 7월 7일 특별시장 Ali Sadikin에 의해 해양 박물관으

로 개관되었다.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VOC 시대부터 있었고 암스테르담 게이트 (박물관부근에 위치)에서 가져 왔다. 박물관 앞에 순다 끌라빠 전망대가 있으며, 길을 따라 조개와 해산물을 파는 빠사르 이칸 시장도 있다.

인도네시아 해양과 어로와 관련된 유산과 정보를 보존하는 해양 박물관은 1835여 점의 수집물을 테마 별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Gedung pertama

1층 ①Ruang 1: 전통 조선술과 어로 장비와 다양한 모형 전시 (예술적으로 보이는 마자빠힛 시대 배도 전시) ②Ruang 2: 인도네시아 해군(TNI AL)과 관련되는 군함 전시 2층 ①Ruang

1: 여러 나라의 바다 신화를 Diorama로 전시
 ②Ruang 2: 인도네시아 바다 신화를 Diorama로 전시
 ③Ruang 3: 1800년대 순다 끌라빠(Sunda Kelapa) 항구의 분주한 저녁 풍경을 Diorama로 전시
 ④Ruang: 항해자들을 사진으로 전시
 3층 ①Ruang 1(오른쪽): 항해와 관련 있는 나침반과 닻, 망원경, 지도, 등대, 램프, 횃불 탑, 기압계 등 항해장비 전시
 ②Ruang 2(왼쪽): 인도네시아 각 지역 전통 작은 배 모형 전시 Gedung kedua
 ①Ruang 1: 어부들이 타는 전통 배의 모형
 ②Ruang 2: 순다 끌라빠 항의 역사(삐니시 모형과 사진)
 ③Ruang 3: 인도네시아 항구- Tanjung Priok, Makassar, banten 등을 사진으로 전시.

삐니시 배(Kapal Pinisi)

남부 술라웨시의 부기스(Bugis)족과 마까사르(Makassar)족에서 유래된 전통 범선으로 7개의 돛을 달고 있다. 중요 돛대에 신앙고백이 적혀 있고, 7개의 돛은 이슬람의 성서 꾸르안의 첫 번째 장 Al-Fatihah 기도문 7구절을 뜻한다. 1500년대부터 삐니시 배를 타고 바다를 탐험했지만, 14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4세기 남부 술라웨시 루우(Luwu)왕국의 사웨리가딩 왕이 중국 We Cudai공주에게 청혼하러 삐니시를 타고 중국으로 갔다. 따라서 삐니시는 사웨리가딩 왕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삐니시를 타고 술라웨시로 오는 중 배는 3부분으로 갈라져, 남부 술라웨시의 아라(Ara)와 따나레모(Tanah Lemo), 비라

(Bira) 3개의 마을로 밀려왔다. 아라 마을 사람들이 선체를 만든 후에 따나레모 마을 사람들은 선체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비라 마을 사람들은 7개의 돛을 올려서 마무리를 했다. 삐니시란 이름은 선장에게 돛을 고치라는 명령을 한 비라 마을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 사웨리가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삐니시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을 때 바다의 향기로 가득 차다’ 라는 뜻이다. 이곳에 있는 모형은 당시에 미국까지 항해한 범선 삐니시 이다. 순다 끌라빠 항구에는 아직도 삐니시 범선이 큰 돛으로 기하학적 아름다움으로 펼쳐져 있다.

란짱(Lancang)범선은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주로 란짱 꾸닝(Lancang Kuning) 배로 알려진다. 리아우(Riau)의 로고와 민요의 주제가 된 이 배는 왕권을 상징한다. 특히 리아우에 있었던 말레이 이슬람 왕국인 시악 스리 인드라뿌라 왕국의 공식 범선이었다. 허나 란짱 꾸닝 배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다. 란짱 준공식 때 제물로 바쳐진 임신 중이었던 주바이다(Zubaidah)공주와 란짱을 타고 공주를 찾아 나섰다가 침몰한 우마르(Umar)사령관. 약속했던 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인고의 세월이 지나 허무만 기다리던 바다 속에서 두 사람은 파도소리 들으며 만났을까.

글라띠(Gelati)는 발리의 해협에 사용했던 어선으로 마두라(Madura)에서는 중 라제(Jung Raje)라고 불린 이 배는 자바의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선체가 길이 12M 이고 넓이 2.6M 나무로 되어 있고 18명의 선원이 탈 수 있다. 보통 이 배로 항해하면서 선원들은 삼각형의 돛 밖에 있는 스피커로 당뚝(dangdut) 장르 노래를 들었다.

전시된 배중에 빠또라니(Patorani)라는 17C, Goa왕국의 전투선인 사각 돛단배가 있다. 또 꼬라꼬라(Kora-Kora)는 거북이 모양의 배로 양쪽 끝은 생선 꼬리 모양이며 예술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15C, 16C의 포르투갈,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배이며 건조 목적은 휴양을 위한 것으로 배 가운데가 단혀 있다.





여러 개의 깃발을 달고 있는 암스테르담-암본행 배를 보면 나는 어느새 동화 속을 거닐고 있다. 1700년대에 만들어진 저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항해기간은 1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으며 돼지우리과 닭을 키우는 닭장까지 있었다 한다. 배 앞부분에 사자상과 여인상이 보인다. 사자가 이 배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여인은 파도를 달래준다고 믿었다. 원형은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있으며 이 모델은 네덜란드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예전에는 배 멀미약 Anytimo를 선전할 때 배의 실지 모델이다. 이 모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촬영했다 한다. 일본에서는 이 배 모양과 똑같은 모형으로 꾸민 레스토랑이 성업 중이다. 짬뽕 이리안은 뱃전 밖의 기움 돛 줄대가 이채롭다. 통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배에 새긴 원시 특유의 문양에서 대자연을 만난다.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는 바다를 마음껏 느끼며 인도네시아가 나름대로 구축한 고도의 해양기술에 감탄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창고가 10개 넘게 있었다고 하니 그 엄청난 착취 량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했을 인도네시아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외로울 때 박물관에 들러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강으로 바다로 떠난다. 다약족이 되어 카누를 타고 마하강 강을 누비기도 하고, 피터 팬이 되어 암스테르담으로 떠나기도 한다. 날개의 이상(李箱)처럼 박제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신비의 세계로 떠난다.

돛을 올리자 미래를 향해.

새 한 마리가 바다 향기 가득 마시며 날고 있다.

주소: Jl. Pasar Ikan No. 1 Jakarta 전화: (021) 669-3406



284회 문화탐방

**탐방지: 묘비박물관, 국립박물관,
대사원, 조양박물관 외**

일시: 10월 31일(토) 8:00-17:00 연구원에서 집결

회비: 40만루피아(비회원 45만루피아)

-커피타임 2회, 점심식사, 차량비 등 일체포함

접수: 안미경 수석팀장 08154216766 채인숙 부원장 081584797879



285회 문화탐방

Kota Tua (제3차정기투어)

일시: 11월 7일(토) 9:00-13:00

집결: 카페바타비아

진행 및 신청: 안미경 수석팀장 08154216766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SMS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두십시오)

회비: 25만루피아(비회원 30만루피아)

정원: 10명 이내



286회 문화탐방

하리 다르소노(Harry Darsono) 박물관

일시: 11월 14일(토) 8:30-11:30

진행 및 신청: 한상인 팀장 0812-8228-8087/08161909976

(SMS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두십시오)

회비: 20만루피아 (비회원 25만루피아) 정원: 15명

집결지: 하리 다르소노 박물관 (Emerald Apt 왼쪽 골목)

Jl. Cilandak Tengah No. 71 Jak. Sel.

(CITOS 와 Emerald Apt 사이 골목. 500m 전진 왼쪽에 위치)

복장: 무늬 없는 단순한 색깔 복장



재단법인(YAYASAN)의 외국인임원(TKA)에 대한 고용허가서(IMTA) 보유 의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그년에 와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서 외국인 고용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외국인 고용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한인동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업종별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직책과 기간을 노동부장관령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의 정관에 등재된 전체 외국인 이사회원(Anggota Direksi) 및 감사회원(Anggota Dewan Komisaris)과 비영리 분야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재된 전체 외국인 지도위원(Pembina/ketua/Anggota), 운영위원(Pengurus/Ketua/Sekretaris/Bendahara) 및 감사위원(Pengawas/Ketua/Anggota)에 대하여, 상근, 비상근, 국내 거주, 국외 거주를 가리지 않고, 회사 혹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으면 고용허가서(IMTA/Ijin Meme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보유 의무를 법제화했다. 회사의 임원은 주식회사법, 노동법 및 출입국관리

법의 규제를 받으나, 재단법인의 임원은 재단법인법, 제정 시 논란이 많았던 사회단체법, 노동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외국인의 고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정책으로 인하여, 비영리 분야인 재단법인이 재단 법인에 상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을 임원으로 등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1. 회사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과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회원에 대한 고용허가서 보유 의무

1.1. 2015년 6월 29일자로 발효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 16호 제37조:

(1). Setiap pemberi kerja TKA(*Tenaga Kerja Asing) wajib memiliki IMTA(*Ij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yang diterbitkan oleh Direktorat(*Direktur Pengendalian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자는 노동부의 외국인 인력조정국장이 발급한 외국인고용허가서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2). IMT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juga bagi TKA yang menduduki jabatan anggota Direksi,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Pembina, anggota Pengurus, anggota Pengawas yang berdomisili di luar negeri.

(상기 (1)항에서 뜻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게도 적용된다)

1.2. 회사의 기존 정관에 이미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과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회원에 대하여 고용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외국인 한 사람에게는 한 IMTA 만 허용하고 있는 노동법상의 규제와, 고용허가서 취득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인력훈련기금, 근로소득세, 수속비) 발생이 불가피하며, 고용허가서 보유 의무에 해당되는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임으로, 회사 혹은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의 기존 정관에 이미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과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회원에 대하여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3. 고용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새로 고용허가서를 받거나 인도네시아국민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외국인의 재단법인 설립 가능 여부

2.1. 재단법인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단독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법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단체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설립은 인도네시아 국민 최소 3명 공동 설립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단법인(Yayasan)으로 사회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사회단체 설립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2.2. 외국인이 단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현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도네시아 국민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할 재단법인 사회단체의 설립요건

- 3.1. 재단법인법 상의 제 요건 구비.
- 3.2.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최소 5년 이상 거주자.
- 3.3. 거주허가서 보유자.
- 3.4. 최초 기금 최소 Rp.10억 이상(설립 운영인의 자산 가치 적법성 확인 각서 제출 의무).
- 3.5. 회장, 서기 및 회계, 이상 3 직책 중 최소 1 직책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선임 의무.
- 3.6. 재단법인 사회단체가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체 설립인들의 공동 각서 제출 의무.

4. 재단법인의 조직

재단법인의 조직은 지도위원회(Pembina), 운영위원회(Pengurus) 및 감사위원회(Pengawas)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은 한국식의 재단이사회나 재단이사장은 없으며, 재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위원회(입법 기능),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행정 기능), 정책수행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사법 기능)로 재단법인의 기능(권력)을 확실하게 분립 시켜 왔으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그 임

무를 완료 함으로 인도네시아 재단법인에는 설립 자라는 직위는 없다. 특정인이 재단법인을 소유하거나 축재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Order Baru 정권 시절의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재단 법인의 권력을 분리시켜 왔다. 재단 법인은 비영리 조직이며 주인이 없는 공유이다.

4.1. 지도위원회(Pembina)

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 최소 1명 혹은 다수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장(Ketua Pembina) 1명, 나머지는 지도위원(Pembina)로 호칭한다.

4.1.1. 지도위원회의 직무

지도위원회는 재단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4.1.1.1.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개정, 기본정책 결정, 연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합병 혹은 해산을 의결한다.

4.1.1.2. 재단법인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4.1.1.3. 운영위원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재단법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4.1.1.4.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위원회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4.1.2. 지도위원 선출 방법

4.1.2.1. 설립인에 의해 지도위원으로 임명.

4.1.2.2. 지도위원회에서 재단법인에 공로자로 평가된 자를 지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1.2.3. 지도위원 전원이 영구 유고 시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지도위원을 선임한다.

4.1.3. 지도위원의 인원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재단법인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하여 한 사람의 전횡을 제

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재단법인의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으로 3명 혹은 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4.2. 운영위원회(Pengurus)

운영위원회는 최소 운영위원장 (Ketua Pengurus) 1명, 서기(Sekretaris) 1명 및 회계(Bendahara) 1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 운영위원장, 부서기, 부회계 등을 둘 수 있다.

4.2.1. 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책임

4.2.1.1.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재단법인의 정책에 따라 재단법인을 운영한다.

4.2.1.2. 운영위원회는 여하한 형태로도 재단법인을 지급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4.2.1.3. 재단법인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1.4.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4.2.1.5. 재단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 얻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재단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모든 운영위원회원(운영위원장, 서기 및 회계)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4.2.1.6.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위원 혹은 재단법인의 직원과 관련이 있는 여하한 단체와 여하한 계약이라도 체결을 금한다.

4.2.1.7. 년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위원 전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4.2.1.8. 재단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귀책사유가 운영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운영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4.2.1.9.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재단법인,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위원은 확정판결문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재단법인의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4.2.2. 운영위원의 임기

4.2.2.1. 운영위원은 지도위원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4.2.2.2. 운영위원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원의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4.2.2.3. 지도위원회의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위원이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4.3. 감사위원회 (Pengawas)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최소 1명 혹은 다수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장 (Ketua Pengawas) 1명, 나머지는 감사위원 (Pengawas)로 호칭한다



4.3.1. 감사위원의 직무 및 책임

4.3.1.1. 운영위원의 재단법인 운영을 감시, 감독, 감사하며 조언한다.

4.3.1.2. 감사위원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위원을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을 임시 해임 시에는 감사위원은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4.3.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감사위원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4.3.1.4. 재단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책사유가 감사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사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4.3.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재단법인,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사위원은 확정판결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재단법인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4.3.2. 감사위원의 임기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하시라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5. 재단법인 운영위원의 연례보고서 작성, 보고 및 공개 의무

5.1. 재단법인의 운영위원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운영위원과 모든 감사위원은 반드시 연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5.2. 연례 보고서를 재단법인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5.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재단법인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견서를 부쳐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위원에게 제출하고,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외국 혹은 제삼자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재단법인,

5.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 사원, 교회,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드라마는 사회성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요즘 드라마를 작업하다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어울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의 의미를 부자의 의미를 포털을 이용해 검색해 보았다.

‘부자’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가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위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새 일일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서

진애와 훈재는 서로 각기 다른 가정형편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호감을 갖고 감정을 키워가는 사이다. 황영선이 훈재의 친모인지 모른체, 사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에 오해를 받았던 진애는 대표이사인 영선의 사과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막내 아들 형순은 누나가 어느 여인과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알린다.

Suasananya terlihat riang. # 사진

분위기가 좋더라구 (좋아보이더라구, 어떠한 것이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신나 보임)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흥에 겹다. 주체할 수 없이 기쁘다 등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을 문장에 따라, 표현 방법에 따라 구별하여 봤습니다.

1. **Riang** = 분위기가 좋은, 들뜬, 신이나는, (기뻐서) 흐뭇한

[Suasana bahagia, penuh gairah dan semangat kegembiraan.]

Berriangd의 자동사로도 사용되며 즐거운, 유쾌한, 기쁜 (기쁜 마음이 드는) 의 뜻을 갖는다.

Contoh :

- Suasana pesta semakin **riang** karena kehadiran gadis periang itu.

- 유쾌한 소녀가 참석해서 파티는 점점 열기를 띄웠다. (점점 신이나는 , 들뜬)
- Kelakuannya sungguh membuat hati **riang**.
- 그이 행동은 진정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2. **Girang** = 기뻐서 흥이나는, 신이 나서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Perasaan senang, bahagia yang diluapkan melalui ekspresi kegembiraan.]

Contoh :

- Murid-murid bersorak **girang** karena sekolah diliburkan.
- 휴일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기쁨에 소리를 질렀다.
- Akibat terlalu **girang** mendapatkan hadiah, Budi jatuh terjerebab.
선물을 받고 너무 신이난(기쁨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이) 부디는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3. **Gembira** = 기쁜, 즐거운, 명랑한, 행복한, 흐뭇한(뿌듯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Kebahagiaan yang dirasakan dengan penuh gairah bangga dan bersemangat.]

Contoh :

- Mereka bekerja dengan **gembira**. 그들은 기쁜 마음(자부심, 뿌듯함)으로 일한다.
- Budi tidak pernah menangis, Ia selalu terlihat **gembira**. 부디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항상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 Mereka melakukan perjalanan itu dengan **gembira**.

4. **Bahagia** = 행복, 행운, 복지의 의미를 갖는 행복, 즐거움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Keadaan atau perasaan senang dan tenteram (bebas dr segala yg menyusahkan)]

Berbahagia의 자동사 또는 형용사로 자주 표현되며 행복한(상태에 있는) / 행복감을 즐기다 라는 뜻을 갖는다.

Ke-an이 붙어 Kebahagiaan = 안녕과 평안 이라는 뜻으로도 표현된다.

Contoh :

- Semoga kedua pengantin hidup **bahagia** selamanya.
새신랑 새 신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한 행운을 누리길 바란다.)
- Ia berusaha keras untuk **membahagiakan** kedua orangtuanya.
그는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안녕과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5. **Sukacita** = Girang 과 같이 흥분되는 즐거운, 기쁨이 넘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 주로 종교 집회때 자주 사용된다.
[kegembiraan berlimpah yang bisa dilihat secara kasatmata oleh orang-orang yang berada di sekitar kita]

Bersukacita 자동사로 주로 사용되며 기뻐하다. 심히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Suka(좋아하다와) + Cita (갈망하다/ 이상을 갖다) 의 합성어가 아닌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속어이다.

Contoh :

- Kami **bersukacita** merayakan kelulusan adik bungsu.
- 막내 동생의 졸업을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다(아주 많이 기쁘다 /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 Kita harus menyambut hari dengan penuh **sukacita**.
우리는 하리를 즐거운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

2015년 안인회 임원산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5	19,96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INDONESIA	2015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5	20,000
4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5	10,000
5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5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5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5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5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DAEWOO SECURITIES INDONESIA	2015	5,000
10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5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배 응 식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2014/2015	10,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5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재 학	PT. KEB HANA BANK	2015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5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 BO JAYA	2015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5	5,000
17	한인회 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5	5,000
18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2015	5,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SWANA PERKASA	2015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5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5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BATAVIA CHEMTEK	2015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5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5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박 현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5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5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5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5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5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5	Rp.13,460,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5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5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2015	1,000
34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5	1,000

35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5	1,000
36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5	1,000
37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5	1,000
38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SJ GLOBAL INDONESIA	2015	1,000
39	한인회 이사	김 종 성	PT. BONGMAN INTERNATIONAL	2013/2014	2,000
40	한인회 이사	김 중 현	PT. KOIN BUMI	2015	1,000
41	한인회 이사	김 현 재	PT. TOUR 153	2014/2015	1,986
42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5	1,000
43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5	1,000
44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5	1,000
45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JAYA	2015	1,000
46	한인회 이사	서 영 름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5	1,000
47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YMER JAYA	2015	1,000
48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 IL JAYA	2015	1,000
49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INDONESIA	2015	1,000
50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5	1,000
51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5	1,000
52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INDONESIA	2015	1,000
53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5	1,000
54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5	1,000
55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5	1,000
56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5	1,000
57	한인회 이사	윤 조 현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5	1,000
58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NGARAN INDAH BUSANA	2015	1,000
59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PT. L S W	2015	1,000
60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5	1,000
61	한인회 이사	이 윤 상	PAKUWON GROUP	2015	1,000
62	한인회 이사	이 주 한	PT. MEDISON JAYA RAYA	2014/2015	2,000
63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5	1,000
64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5	1,000
65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JAYA	2015	1,000
66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PT. LSP	2014/2015	2,000
67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INDONESIA	2015	1,000
68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INDONESIA	2015	1,000
총 금액					US\$187,949
					Rp13,460,000

2015년 안인회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5년 10월 1일 기준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1	승은호	2015	300,000
2	신기엽	2015	300,000
3	조규철	2015	300,000
4	김재민	2015	300,000
5	신규태	2015-2016	600,000
6	김영환	2013-2015	300,000
7	이현	2013-2015	300,000
8	최우범	2014-2015	300,000
9	최석일	2015	300,000
10	오세명	2015	300,000
11	김대근	2015	1,300,000
12	김영울	2015	1,300,000
13	김창근	2015	1,300,000
14	조용재	2015	1,300,000
15	김양임	2015	300,000
16	안창섭	2015	300,000
17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0
18	최양기	2015	300,000
19	홍석영	2015	300,000
20	강덕재	2015	300,000
21	승진아	2015	300,000
22	오세윤	2015	300,000
23	강희중	2015	300,000
24	김평수	2015	10,000,000
25	PT. INDOKO SAKTI	2015	1,300,000
26	한덕수	2015	300,000
27	박재한	2015	300,000
28	배응식	2015	300,000
29	이순형	2015	300,000
30	이호완	2015	300,000
31	류호한	2015	300,000
32	전영돈	2015	300,000
총 금액			Rp.27,300,000

[한인회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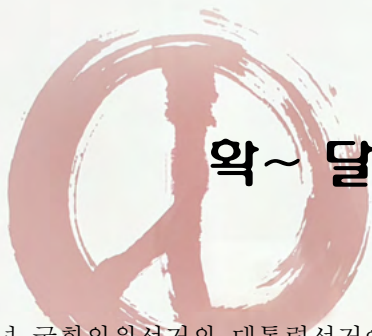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악~ 달라진 재외선거제도

재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옥미선 재외선거관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2기 재외선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270만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고자 했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1기 재외선거는 비장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재외선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대통령선거보다는 재외국민들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외선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재외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에의 참여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시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이다.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투표소인 공관까지는 몇 시간에서부터 심지어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희생하여야 하므로, 아무리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재외투표는 결국 해외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외선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신청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공관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쉽게 신고·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신고·신청시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개인정보 누출 염려로 인하여 자신의 여권사본을 제출하기를 꺼려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만간에 입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의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부재자(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 선거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귀국투표제도가 도입된다. 귀국투표제도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한국에 귀국하는 유권자들도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전에는, 국외부재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투표기간 중 한국에 머무는 경우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이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자주 오가는 유권자들도 마음놓고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투표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관외에 추가로 1-2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 기준 재외국민 수가 40,741명으로, 추가로 1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추가투표소가 설치됨으로써 투표소에의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존의 재외선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재외선거제도가 십 수년의 논의 끝에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어렵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단합된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인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짜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짜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짜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짜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횡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짜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짜까랑) 8983 6047
 아리랑(짜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가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짜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보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	----------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람)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람)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람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아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나름’이 아닌, ‘다름’

삼성이노베이션두지엄

모든 사용이치는 본사 디자인 디렉터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사진입니다.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el 021.7919.006(Rep) Fax 021.7919.2062



Chung-Dam Beauty Salon



POSCO INDONESIA INTI



KBS Media Center



Haeslay Ninebridge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